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

© 2020 WCC Publications.

본 출판물은 저자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공동번역 성서가 인용되었습니다.

편집팀: 앤 캐스파슨 (Anne Casparsson), 매리안느 에저스텐 (Marianne Ejdersten),
김진양 박사, 이바스 쿱시스 (Ivars Kupcis), 피터 프루브 (Peter Prove), 신승민 목사,
린 반 루옌 (Lyn van Rooyen)

번역: 김진양 목사, NCKK 화해·통일국

사진 출처

표지, 1, 4, 7장: 알빈 힐러트 (Albin Hillert)

발간사, 8, 9, 11장: 폴 제프리 (Paul Jeffrey)

2, 10, 13장: 그레고리 드 폼벨 (Grégoire de Fombelle)

3장: 이바스 쿱시스 (Ivars Kupcis)

5, 15장: 한국기독교장로회

6장: 피터 윌리엄스 (Peter Williams)

12장: WCC 아카이브

14장: ©2019 John C Park.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150 route de Ferney, P.O. Box 2100

1211 Geneva 2, Switzerland

<https://www.oikoumene.org>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www.kncc.or.kr

목차

책을 펴내며 - 이홍정 목사	8
발간사 - 장상 목사	9
서문 - 요한 사우카 신부 (Rev. Prof. Dr Ioan Sauca)	11
평화의 빛 시리즈	13
1장: 분단에서 화해로	15
성찰: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고통	16
평화를 향한 예언자적 부르심 - 한반도 역사를 펼쳐보며	17
기도	21
2장: 제2차 세계대전의 노리개	23
성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24
1945년 한반도 분단과 계속되는 여파	25
기도	29
3장: 한국전쟁의 비극	31
성찰: 노근리	32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참전 미군용사들	33
전쟁,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36
한국전쟁은 여전히 “영원한 전쟁”	38
기도	42
4장: 민족의 이별	43
성찰: 천만 이산가족들	44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대한 적십자사	45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	47
이산가족들의 증언	49
기도	51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	5

5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53
성찰: 지혜로운 여성	54
여성이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	56
기도	60
6장: 평화 창조적 영적 차원	61
성찰: 담대하게 화해하기	62
WCC의 평화 사역, 한반도에서 영광을 얻다	63
기도	66
7장: 1988년부터 시작된 공동기도문	67
성찰: 평화의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기	6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기도문	70
기도	72
8장: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 활동	73
성찰: 어리석은 지혜	74
믿음과 치열한 인내 -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연대하며	76
여전히 분단된 한국(조선)인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 독일 교회와 선교	79
기도	82
9장: 세계기도운동	83
성찰: 한반도 민의 정의 위에 서는 평화	84
기도는 평화의 열쇠	85
기도	89
10장: 한반도 교회 앞에 놓인 도전들	91
성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실한 번민	92
민회 화해: 갈등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도전들	93
88선언 동기와 내용	96
기도	99

11장: 평범한 한국(조선)인들에게 미친 영향	101
성찰: 최대의 참여	102
분단과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	104
기도	107
12장: 교회의 기억	109
성찰: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오랜 여정	110
사랑이 소망을 낳다: 도잔소 영성	111
기도	114
13장: 도잔소 - 한반도의 지구적 연대를 향해	115
성찰: 지구적 연대	116
평화 과정의 지구적 연대	117
기도	121
14장: 평화와 일치 - 이루기 어려운 목표	123
성찰: 진정한 평화	124
이루기 어려운 평화와 일치	126
평화에의 헌신	131
기도	134
15장: 이제 행동할 때	137
성찰: 한반도에서 일치는 가능한가?	138
최선의 길을 찾아서	140
기도	146
후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149
2020년 6월 25일 한(조선)반도 전쟁 70주년 세계교회 공동 평화선언문	151
부활절 공동기도문	156

책을 펴내며

분단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이 땅, 한반도는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져있습니다. 뿌리 깊은 적대의식, 케케묵은 이념갈등,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과 비난과 정죄로 서로를 핏대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88선언을 통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분단의 현실이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로 분단 자체가 죄임을 말하며, 분단과 증오에 대한 처절한 죄책고백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동지로서 함께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아낌없는 연대가 오늘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특별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소중한 안내서를 출판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담긴 생생한 증언과 간절한 기도가 큰 울림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책에 기도문과 간증,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WCC 편집팀 Anne Casparsson, Marianne Ejdersten, 김진양 박사, Ivars Kupcis, Peter Prove, 신승민 목사, Lyn van Rooyen, 교회협 노혜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과 편집으로 애써주신 제이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발간사

장상 목사 (WCC 아시아 지역 회장)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은 70년간을 분단, 적개심 그리고 대립 속에서 살아왔고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성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오랜 분쟁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징조입니다.

지금은 70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분단과 냉전이 빚어낸 깊은 골을 극복하며, 우리가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20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애통함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 평화 통일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에큐메니칼 세계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한 것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에큐메니칼 순례에서 중요한 지점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70년 된 적개심과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책자는 한국 현대사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분열을 역사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서술하였고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적,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각 장은 신학적 서문인 영적 성찰로 시작하며, 개인적 이야기와 인터뷰 및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전쟁 70년이 가져온 아픔과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정의를 향한 순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향한 비전과 희망, 열망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계속됩니다.

이 책을 위해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회원들을 비롯하여 성직자, 평신도, 청년, 학자, 참전군인, 그리고 한국전쟁 희생자들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지지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건설적인 비전과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영감이 되어 교회와 선교기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화해와 통일을 위해 더 지지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순례의 길에 머물렀던 전세계 순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70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1-2).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순례에 함께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상 목사는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서리이자 현 WCC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통일부 통일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고, 세계개혁교회연맹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 실행위원을 2년간 지냈다.

서문

요한 사우카 신부

(Rev. Prof. Dr Ioan Sauca, WCC 총무 대행)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나라 전체는 폐허가 됐으며,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분열뿐만 아니라 참혹한 개인적 고통과 상실에 기반한 분열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낙관적으로 시작된 외교 프로세스의 진전 부족과 적개심을 내려놓거나 적대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일부의 도발적 행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2018년 시작된 평화의 기회는 허비되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대립의 시기와 새로운 재앙적 갈등의 위협으로 치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있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30년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참여하는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많은 변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평화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의 원천은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고전 14:33)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담대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끔찍한 충돌이 발생한 이후부터 남북 관계의 중심에 늘 놓여있던 전쟁을 종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항구적인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향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취할 때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성 바울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엡 2:13-14)

WCC 총무 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는 루마니아 정교회 출신으로 1998년부터 보세이에서 선교학과 에큐메니칼 신학교수로, 2001년부터는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평화의 빛 시리즈

평화의 빛 두 번째 출판물인 이 소책자는 2020년 WCC 회원교회에 70년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반도 갈등에 대해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한반도 여정에서 각자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기고자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판물인 “평화의 빛 - 교회와 한반도”는 2020년 6월에 발간되었고, WCC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빛 -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는 첫 번째 출판물을 토대로 구성, 확장되었습니다. 영적인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장은 영적 성찰로 시작하여 본문으로 이어지며 기도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독자

이 출판물은 교육적, 영적, 지도력개발 자원으로써 교회와 개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단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책은 성서공부나 한반도 상황에 관심있는 여러 모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자료로서 보아야 합니다.

독자나 교회 지도자는 순서와 상관없이 각 장을 사용할 수 있고 한반도에 대해 배우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고 연대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서문에서는 한반도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1945년 한반도 분단에 대해, 그리고 냉전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중 생존해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책은 또한 디아스포라인 이산가족의 비극, 오늘날 평범한 한국(조선)인들이 받고 있는 영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분단 뒤에 이어진 전쟁의 충격으로 남북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증오로 굳어졌습니다. 철조망이 세워졌고, 땅에는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가족들은 헤어졌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평화를 위한 지역과 세계의 에큐메니칼 행동

이 책은 평화와 화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여성들을 부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이 한반도 땅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온 과정을 조명합니다.

WCC가 지역적, 국제적으로 이룬 평화 활동과 더불어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지역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동행은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대화를 향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 기도

WCC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에 모든 회원교회들을 초대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기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책 두 개의 장에서는 1988년 선언문뿐만 아니라 평화 과정에서 한국(조선) 교회가 해온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그 기도의 여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도잔소 프로세스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WCC가 주최한 에큐메니칼 협의회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도, 화해를 위한 협력, 대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잔소 프로세스는 공유된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남북민의 만남을 이끌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에큐메니칼 교회의 노력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양국에서 온 한국(조선)인들은 성찬과 신앙과 소망을 공유했지만, 그 과정은 깨지기 쉬우며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화 과정

한반도는 70년 동안 전쟁상태를 겪어왔습니다. 지금은 전쟁 종식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은 정의, 신앙, 사랑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해, 대화, 그리고 평화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날 한반도에서 어떻게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자 합니다.

편집팀: 앤 캐스파슨 (Anne Casparsson), 매리안느 에저스텐 (Marianne Ejdersten), 김진양 박사, 이바스 쿽시스 (Ivars Kupcis), 피터 프루브 (Peter Prove), 신승민 목사, 린 반 루옌 (Lyn van Rooyen)

1장

분단에서 화해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고통

김정호 목사 (Rev. James Chongho Kim)

창세기 33장 3-4절은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야곱과 에서가 만나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늘 남북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버지는 겨우 16살 때 북에서 남한으로 피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1950년대부터 일기를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고 제대로 된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랐지만 70년대 이르러 그 희망을 접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동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38선에서의 한반도 분단은 땅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눠 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누님들을 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들 중 한 분을 만났을 때, 저는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위조된 신분인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인 조카를 만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렵거나 막냇동생이 피난을 가 미국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중단되자, 그녀는 얼굴을 돌렸고 그때 그녀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모가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 그녀는 아버지 가족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추억을 나눠주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통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생겼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세대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믿으며 나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모여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 재건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한반도 민족과 나라에 평화와 통일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호 목사는 미국 뉴욕 플러싱메일교회 담임목사이며, EFK 회원이다. 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끌어왔다.

평화를 향한 예언자적 부르심

- 한반도 역사를 펼쳐보며

이홍정 목사

분단의 근대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의 파도가 최고조에 이른 19세기 이래,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패권 투쟁 속에서 고통 받는 운명에 놓였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잇따랐고, 결국 한국(조선)인들은 비극적인 민족 분단에 처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여파를 이어 1905년 7월 29일에 체결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동아시아 문제, 특히 한국과 필리핀의 위상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에 대한 기본 협약으로 만들어졌다.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이유를 설명했고, 미국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을 획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 미국의 외교 개입으로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명목상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36년간 일본에 강제 점령당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장개석은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만나 일본이 무력으로 정복한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3대 강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했다. 1945년 2월 4일에서 11일까지 열린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조셉 스탈린에게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안을 제기하였다. 스탈린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신탁통치 기간은 짧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이틀 뒤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소련군은 빠르게 진격했고,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다. 1945년 8월 10일, 2명의 젊은 장교 딘 러스크와 찰스 보네스틸이 미국 점령 지역을 규정하기 위해 파견됐다. 그들은 너무나 짧은 통보 기간 동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38도 선을 확정했다. 38도 선 분할은 한반도를 거의 절반으로 나누면서도 수도 서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때 일본과 러시아가 같은 선을 따라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협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두 지역을 점령했고 한국(조선)인 1,600만 명은 미국 구역에, 900만 명은 소련 구역에 놓이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감시 하에 미국이 점령한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반공산주의자인 이승만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김일성은 조셉 스탈린에 의해 북조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이 결과로 8월 15일에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곧 이어서 9월 9일에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한반도 분단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한 양측의 군대는, 국경을 따라 일련의 유혈 충돌을 일으켰다. 이 충돌들은 1950년 6월 25일에 북측 군대가 남한을 침략하면서 극적으로 고조되었고, 한국전쟁을 촉발했다. 유엔은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를 파견하면서 개입하였다.

판문점 체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에 상호 원조를 약속하며, 미군의 남한 내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한국이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이른바 '판문점 체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 동안에 주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전후 경제적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본 점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미국과 일본간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었다.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는 '소극적' 평화체제로서 냉전체제의 양 측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제도화했다. 이 체제는 자신들의 패권 쟁탈을 위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켰고, 한반도 민의 생명안보를 침해했다. 냉전 분단 상태에서 남과 북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민에 대한 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되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은 냉전의식과 문화로 인해 깊이 왜곡되었고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이방인이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종말론적 규모의 대량살상무기가 밀집된 세계 군산복합체의 수렁에 빠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주권 수호를 위해 핵 탑재 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된 핵미사일로 무

장한 정상국가임을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북조선 정부의 붕괴, 국경을 넘는 난민 유입, 또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두 국가는 북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관련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장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조선 정부에 맞서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평화로운 해결책은 세계시민의 상식, 평화적 실용주의, 그리고 자기 보존의 본질을 기본인식으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북조선에 대해 어떠한 군사력도 사용하지는 안 되며,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 선언을 토대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북의 비핵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핵 없는 북조선 정권을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잠재 가능성을 볼모로 잡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비핵화 대신에 보다 긴밀한 남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며, 평화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 평화는 비핵화보다 먼저 와야 한다. 북의 비핵화는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없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평화 구축은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후쿠시마 이후 시대의 종말론적 상황에서 핵 없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강제 점령 하에서 고통 당하던 한반도의 민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적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과 소련의 가장 무모한 타협이었다. 이는 냉전시대라는 반인륜적이며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격동이 남긴 가장 뼈아픈 잔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반동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구조적 죄악이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다.

신학적 관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총체적 구원 행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 역사의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서사의 끝이 아니라 그 서사의 진정한 완성, 즉 부활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은 인간이 만든 황무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혁을 이루므로 출애굽과 해방과 희년의 완성을 실현할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분단은 갱신과 변혁을 이루기 위한 오메가 포인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평화로운 민족 공존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잔은 한반도 해방의 완성을 향한 소망의 잔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과도 특히 핵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할 수 없다. 핵전쟁은 사람과 자연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파괴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계 종교시민사회가 수년 당하는 사랑의 성만찬적 연대로 한반도의 진리와 빛에 대한 예언자적 증언에 동참하므로 냉전 분단의 사슬을 끊어낼 것을 간구한다.

치유와 화해를 위한 신앙공동체인 우리는 서로를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만찬적 연대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 평화를 발전시키고, 민의 생명 안보를 강화하고, 냉전 분단의 사슬을 끊어내므로, 남과 북을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에서 진리가 지배하는 희년의 새로운 창조물로 갱신하고 변혁시킬 수 있다.

참고 문헌

- Cum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한국현대사],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5.
- Eckert, Carter J., Ki-baik Lee, Young Ick Lew, Michael Robinson, and Edward W. Wagner. *Korea Old and New: A History*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 역사], Seoul: Ilchokak f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1990.
- Kim, Hakjoon,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Debates on the North in the South* [한반도 통일의 국내정치: 북한에 대한 남한에서의 논쟁], 1948-2008. Seoul: Jimoondang, 2010.

이홍정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 EFK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울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수 세기 동안의 그들의 고통과 자유와 주권을 향한 갈망을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 그 때부터 결코 끝나지 않았던 그 전쟁 이후의 그들의 여정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핵무기와 온갖 종류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위협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미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울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분단과 모든 불의로 인한 상처들을 아십니다. 가족들이 나누어져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두려워하는 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단이 종식되기를, 서로를 다시 알아가며 서로 형제, 자매로 인식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울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풍성한 생명과 회복된 관계를 갈망하는 그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군대의 주둔과 천연자원의 착취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혼의 치유뿐 아니라 자연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또한 어머니인 대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공휼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로즈마리 워너 주교 (Bishop Rosemarie Wenner)는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제네바 총무로 독일에 근거를 두고 일하고 있다.



2장

제2차 세계대전의 노리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토마스 켐퍼 (Thomas Kemper)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 5:9)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실제로 화해 사역을 하며 살아온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의 소명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헌신에 대해 가르쳐주었고, 변혁의 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긴 호흡', 또는 인내의 독일식 표현인 'langer Atem'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정희수 감독은 남한에서 태어났고 현재 미국 위스콘신 주 감독이자 세계선교부 회장입니다. 그는 불교/신유교 가정에서 기독교인으로서 10대 시절을 보낸 후부터 화해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회 지도력을 지니면서도, 언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내자이자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그는 특히 70년 전 시작된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평화조약의 체결을 중시했습니다.

제임스 T. 레이니 목사 (The Rev. Dr James T. Laney)는 주한미군 감리교 선교사이자 교육자로서 한국에 머물렀으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대학 학장과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레이니 박사와 그의 아내 베르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가장 축복받은 삶의 시간으로 여기며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이니 박사는 2019년 세계감리교회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레이니 부부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기여한 큰 공헌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해왔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정희수 감독과 베르타, 짐 레이니와 같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들을 통해 화해자와 변혁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마스 켐퍼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총무이자 EFK 회원이다.

1945년 한반도 분단과 계속되는 여파

알렉산더 일리체프 (Alexander Ilitchev)

한국은 영광스러운 오랜 역사와 함께 격동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수십 세기 동안 한국은 하나되어 있었다.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45년 9월 초에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패배시켰다.

조국이 다시 독립하기를 바랐던 한국인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의 광복은 전쟁 동맹국들 간 합의에 따라 38선 분단을 동반했다. 미국은 38선 남쪽을, 소련은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 어떤 공적 기록에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분할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신탁통치”라는 개념은 미국의 발상과 소련의 마지못한 묵인으로 추진됐고, 이후 한국에 대한 점령으로 변형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는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나뉘어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담 후,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 구체화를 위해” (신탁통치를 포함하여) 남측 미국 사령부와 북측 소련 사령부로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협정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를 규정하는 데 양측이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¹

두 개의 한국(조선)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미국이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²

¹ Byrnes, James F, et al.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Moscow.” *Avalon Project –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Moscow* [아발론 프로젝트 – 10년간의 미국 외교정책 – 모스크바 외무장관 임시회의], 27 Dec. 1945, avalon.law.yale.edu/20th_century/decade19.asp.

² Charles Krauss, “Failed Diplomacy: Soviet–American Relations and the Division of Korea,” [실패한 외교: 소련–미국 관계와 한반도 분단] May 18, 2020, para. 14.

결의안은 유연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위원회의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할 것"³을 권고했다.

중요한 것은, 결의안에 "각 지역 대표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야 한다"⁴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가 자동적으로 북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 대표단은 유엔은 한반도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통일된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소련 측은 유엔이 준비하는 선거를 논의하기 전에 유엔 총회에서 외국 군대 철수에 대한 자신들의 제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국 대표단이 유엔에 초청될 때까지 모든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대표단 또한 유엔 위원단 참여를 거부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광범위한 폭력과 대규모 부정행위가 동반된 선거가 치러졌다. 북측 주민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북은 유엔 위원단의 입북을 금지했고 위원단은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3세의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많은 논쟁 끝에, 1948년 7월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고 이승만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으로써 미군정은 종료되었다⁵. 1948년 겨울,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선언했다.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1948년 4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고, 8월 25일에는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들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는 첫 회의에서 헌법을 비준했다. 9월 9일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10월 12일, 소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했다.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faileddiplomacy-soviet-american-relations-and-division-korea>

³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한반도 독립 문제에 관한 총회 결의 제112호(II)], /RES/112(II) (13 November 1947), available from [https://undocs.org/en/A/RES/112\(II\)](https://undocs.org/en/A/RES/112(II))

⁴ 같은 글에서

⁵ "The House Divided The Americans Occupy South Korea."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정책과 방향: 첫 해 "미국인을 분열시킨 하원이 남한을 점령하다.], by James F. Schnabel,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1946년 중반까지 한반도 내 소련군은 대부분 철수했다. 1948년 9월 19일, 소련은 모든 소련군이 연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했고 미군도 마찬가지로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은 1949년 1월 1일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해 6월 말까지 군대를 철수했다.

남북의 공식적 분단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 분단은 확정되고 공식화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정치 모델을 따라 “인민의 민주주의 국가”로 방향을 정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따르는 방향을 선언했다. 두 나라는 각자 헌법에 자신이 한국(조선)인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을 조항으로 담았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분단에 부리를 둔 내전으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산물이다.⁶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외부에 의해 해방된 한국에는 나라를 통합할 만큼 영향력 있고 유능한 국내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엘리트 계층은 대부분 일본 식민지 정부와의 협력으로 크게 신임을 잃었고, 애국적인 개인들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했다. 해방된 한반도는 수많은 정당과 운동이 빠르게 탄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이념적, 정치적 차이가 존재했고 전국을 아우르지 못했다.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전국적 차원의 민주주의 정당 또는 운동의 설립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에 소련은 다양한 한반도 정치 세력과 반대 세력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친미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했다. 평양에서는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아 좌익 세력과 그 동조 세력들의 단일 정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은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며 공동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화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대결로 인해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의 소련-미국 간 외교 붕괴와 한반도 두 지역을 각각 지원하던 정책들은 명백히 한반도 분단을 영속시켰고 1950년 전쟁 발발에 크게 기여했다.

⁶ Charles Krauss, “Failed Diplomacy: Soviet-American Relations and the Division of Korea,” [실패한 외교: 소련-미국 관계와 한반도 분단], May 18, 2020, para. 17.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faileddiplomacy-soviet-american-relations-and-division-korea>

통일과 독립

오늘날 미국은 남한에 소위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고 약 28,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한의 대북 관계에 상당한,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이 추진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점차 소련과 중국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채택했다. 2006년 북의 첫 번째 핵 실험이 있기 전까지 북은 소련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누렸고 평양은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자립과 함께 “주체” 사상을 내세웠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⁷에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⁸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후 평양에서는 남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라는 지도적 원칙을 만들어왔다.

자국의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북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핵무기를 추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핵무기에 반대하면서도, 북-미 교착상태와 관련 핵문제는 외교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결정했다. 남북 관계는 평양과 워싱턴 간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 또한 지지하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겠다고 선언했다.⁹ 선언대로 되기를 소망한다.

알렌산더 일리체프는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위원이자 에너지 및 안보연구센터(CENESS) 선임 고문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⁷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7.4 남북 공동 성명]. 4 July 1972.

<https://peacemaker.un.org/korea-4july-communication>

⁸ 같은 글에서

⁹ Panmunjom Declaration on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통일에 관한 판문점 선언]. <https://www.mof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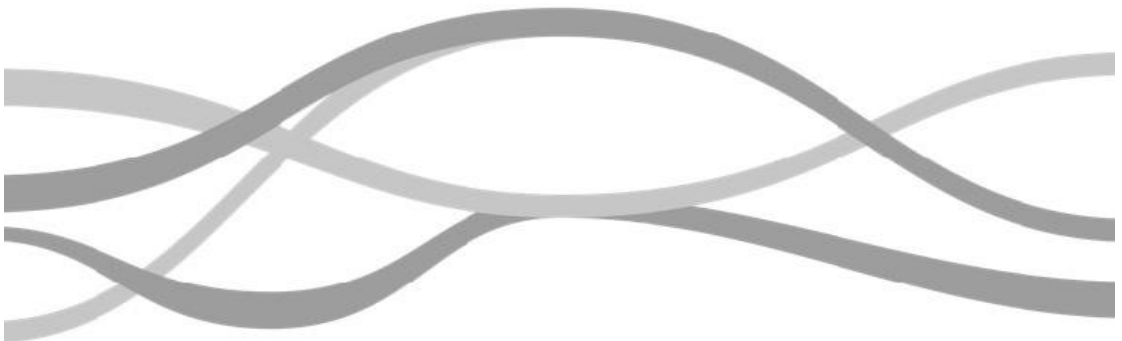
기도

오랜 분단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분단현실은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불신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현실은 계속되는 고통이며 우리는 세계교회의 친교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0년의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조약과 남북한의 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교회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해방과 자유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해주십시오.

매일 분단되어 갈라진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너무 오래 흘렸으며, 갈라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길 원하며 흘린 그 눈물이 세계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냉전을 멈추고 다시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북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화해의 꿈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극과 대립이 아닌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분단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쓰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희수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위스콘신 연회 주재 감독이자 세계선교부 회장이다. 또한 WCC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회원이다.



3장 한국전쟁의 비극



노근리

톰 케네디 (Tom Kennedy)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한국전쟁 초기, 400여 명의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살해 당했던 악명 높은 곳.

저는 한국에 파견된 다섯 명의 '평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대표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한 한국군 대장을 포함한 호스트들과 함께 동글게 서서 노근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차 터널의 입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총알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꽃과 그림들이 있는 작은 제단은 60년 전 이곳에서 죽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 명 정도의 사람들 중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홉 살 소녀였던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기관총과 비행기에서는 마을 입구와 기차 터널을 공격하는 총알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알고자 했고 그녀는 부드럽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소음과 비명 속에서,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죽은 가족들을 살펴보지만 빠져나온 그녀의 왼쪽 눈은 손 안에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마치 사과하듯, 이 아홉 살 소녀를 품에 안습니다.

톰 케네디는 한국전쟁 참전 미군으로 평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회원이다.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참전 미군용사들

폴 제프리 목사 (Rev. Paul Jeffrey)

한국전쟁 발발 후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한 많은 참전 미군용사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샌 디에고의 참전용사 스탠 레빈은 “처음 50년 동안은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쟁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비는 넘어왔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격렬하게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및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한반도 화해를 위한 호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레빈은 90대의 나이에 이르러 한때 그가 느꼈던 전쟁에 대한 열광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옳았다고 정말 믿었다. 유엔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의문이다”라며 “한국에서 지낸 모든 시간이 괴롭고 정말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레빈은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지역 지부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군 애어쇼나 다른 행사 등지에서 반전 현수막을 들고 평화를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하며 시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옥을 키우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빈은 또한 다른 참전용사들과 함께 남한으로 돌아가 제주도 미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지는 환경 운동가들과 반전 활동가들의 10년 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레빈과 다른 참전용사들은 제주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종단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남한 정부는 새로운 공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벌 받을 일”이라고 레빈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샌 디에고 지부는 “کم패션 작전”이라고 불리는 침낭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전용사인 샌 디에고의 잭 독시는 그들이 돕는 노숙인들 중에는 많은 수의 참전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군 복무 이후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독시는 이 단체가 지금까지 시내에만 4000개 이상의 침낭을 배포했으며, “침낭을 나눠줄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시는 이 노숙인 참전용사들이 정부에 의해 전쟁에 사용된 후 집에 돌아오자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마철이었고, 참호 속에 소총을 내려놓고 있었다. 한 병장이 내게 무기를 파손하면 군법회의에 회부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너는 대체품이고 흔해 빠진 병사다. 너는 당장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한국에 갔을 때, 내 이 사이에는 미국 국기가 끼어 있었다. 병장에게 그 말을 듣고 참호 속에 깃발을 떨어뜨렸고 다시는 그 깃발을 들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 일할 의무

피트 맥클로스키는 한국에서 해병대 소위로서 두 번 부상을 당했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그는 평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미 의회 의원이었던 그는 1972년과 198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미국의 외국 전쟁 참여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전쟁에는 영광이 없다. 전쟁에는 서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겁먹은 남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맥클로스키는 참전 중 6건의 총검 혐의를 주도했지만,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전쟁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특권을 가졌다면, 폭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고 불타 죽게 하고 끔찍한 사상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는 특권을 가졌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특권, 어쩌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그 광경을 보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젊은 시절에는 전쟁의 위험에 처하기를 두려워했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광이나 겁쟁이 매파보다 나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는 맥클로스키는 한국전쟁 70주년은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를 건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과 북에는 한반도가 한 민족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한반도는 4000년의 역사를 가졌고 중국, 일본에 대항해 싸웠다. 그들은 호치민 휘하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웠던 베트남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부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민이 장군들에게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내 조국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제프리 목사는 미국 오레곤에 근거를 둔 연합 감리교 사진기자이다. “Life on Earth Pictures” 창립자로 1950년대 미군 기지에서 성 노동자로 일했던 한국 할머니들에 대한 최근 기사를 포함해 한반도에 대해 자주 보도해왔다.

전쟁,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정인철

나를 구해주고 전사한 헨리 대위를 밀치고 후퇴를 거듭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6.25에 참전하였고 충북 옥천 지역 미 1기병사단의 수색 중대 2소대 1분대에 편입되었습니다. 각 소대에 60mm 박격포 1문, 각 분대에 경기관총 1문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무기 사용법을 몰라 미군 헨리 대위로부터 실탄장전 및 사격요령을 교육받았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전투가 없었고, 충북 영동 황간, 선산, 구미에서 간헐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왜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왜관 북쪽 303고지에 인민군 1개 사단이 계속마다 잠복해 있다고 했고, 우리 수색중대가 고지정상을 점령하면 미 기병사단이 밑에서 올라가서 인민군을 전멸시킨다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오후 5시경 우리는 일주일 분의 식량과 물, 실탄을 가지고 포복으로 산을 기어 올라가 새벽 4시경 303고지의 약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고지에는 적이 이미 포진해 있어서 우리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1개 중대 병력으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일주일 분의 실탄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결국 북한군과 백병전이 벌어졌고 우리는 역부족으로 산 아래로 급히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파른 계곡에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 헨리 대위가 손을 내밀어 저를 구했지만 불행히도 헨리 대위는 저격병의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를 업고 후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비참함을 한 평생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8월 17일, 저는 저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해주었던 헨리 대위에 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교훈

우리는 3년 1개월 간의 6.25 전쟁으로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던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회오리바람 앞에서 금방이라도 꺼져 버릴 듯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부모, 형제를 두고 자신의 입신에 대한 꿈들을 접고 참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서 적의 총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서술한 전쟁의 한 단편은 저보다 더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저는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전쟁의 참상과 현실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투에서 총알받이로 전사하는 전우들의 시체를 방패 삼아 목숨을 연명하는 일상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 건너편 내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군 또한 나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내몰린 그저 하나의 생명이었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나 또한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적군의 총을 맞은 나의 전우이자 은인인 헨리 대위를 전장에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념 수호를 위한 전쟁, 힘의 논리를 펴기 위한 전쟁? 신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생명을 인위적,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전쟁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최전선에서 겪어본 저에게 이러한 말은 그야말로 실상을 모르는 자의 헛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무력의 충돌을 양산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혈사태로 분쟁을 해결하려던 역사의 과오를 바로 알아 배우고,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지난 과오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글귀를 적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인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제1기병사단에서 복무했던 참전군인이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은 여전히 “영원한 전쟁”

수잔 김 (Susan Kim)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한 2020 웨비나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전쟁의 역사와 항구적인 평화를 찾는 데 실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커밍스는 탁월한 역사학자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웨비나는 한국 평화네트워크, Korea Peace Now! 풀뿌리 네트워크, Peace Treaty Now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주최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70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로 알고 있는 6월 25일에 의도적으로 열렸다. 사흘 전 WCC 펠로우십과 교회협의회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모여 한반도의 자매 형제들 앞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메시지를 발표하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에 평화의 길이 마침내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다.

그 길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김종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공동 창립자는 “여전히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전쟁은 그 트라우마와 여파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잠시 침묵의 시간을 요청했다. “전쟁은 약 2백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경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가족들을 분리시켰다.”

커밍스는 한반도의 70년 전쟁에 대해 “영원한 전쟁”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영원한 전쟁’이라며 마치 새로운 무언가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원래 ‘영원한 전쟁’은 한국에서의 전쟁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전반적으로 평화는 유지되어 왔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거의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커밍스는 또한 한국전쟁의 실제 시작은 70년 전이 아니라 75년 전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역사학자들과 옹호자들은 흔히 전쟁 시작일로 알려진 1950년 6월 25일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1945년 9월에 2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며 “그들은 3년 동안 군사정부를 세웠고 전쟁 때까지 군사 자문단을 남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지지 않은 점령

사람들은 일본이나 독일의 점령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한국에서의 점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커밍스는 주장한다. 커밍스는 “미국은 물론 미국이 선택한 사람들과 일하며 남한 역사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 점령은 그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져 있다면 잊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의 시작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귀결된다고 커밍스는 주장한다. 그는 “그것은 미국과 유엔의 공식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항상 도전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역사학자들은 출판할 때 기존 문헌을 개정해야 한다. 6월 25일이 시작일이라는 문제에 대해, 공정성이나 정의를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1949년 미국의 대외관계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1949년 8월에 국경 충돌과 거의 전쟁과 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일급 기밀로 다뤄지다 35년 후에 공개되었다.”

1940년대 중반 미국 국무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커밍스는 “루스벨트는 신탁통치를 원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우세한 역할을 갖기를 원했고, 유일한 방법은 군사 점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45년 2월 루스벨트가 사망한 후 미국은 군사 점령을 진행했다. 왜일까? 커밍스는 “국무부가 30,000명에 달하는 한국 게릴라들이 2차 세계대전과 만주에서 돌아와 한국을 쉽게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주요 이유”라며 “이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엄청난 전략적 실패”라고 말했다.

커밍스의 역사 해석은 우리에게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전쟁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북과 매우 위험한 포옹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부터 북에게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은 통상금지과 금수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일 것

WCC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제재의 역효과에 대해 우려해왔다. 대북 제재는 자연재해 시 디아코니아적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해가 되고, 대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커밍스는 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확실히 북은 지난 71년 동안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그는 “대북 제재가 가져오는 어떠한 긍정적 결과

도 알지 못한다”며 “이러한 정책들로부터 엄청난 적대감이 뿜어져 나왔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커밍스는 1945년 이후 미국이 관여해온 5개의 주요 전쟁을 열거했는데 그의 판단에 의하면 페르시아 걸프전만이 유일하게 승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한반도는 교착 상태에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보다 현재 탈레반이 더 강력해진 것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패배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내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모든 사례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한 가지는 한국은 한국인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 역사에서 극심한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의 사람들은 일본이나 남한이나 미국과 어떤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지금은 2020년이다.”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쟁으로 남은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쟁으로 남아있다. 그는 “군인들만 서로 마주하고 죽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주로 남쪽 정부나 우익 청년단체에 의한 정치적 학살로 살해당했다”며 “북의 사람들은 남에서 자신들의 좌파 친구들이 계속 학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한군은 닥치는 대로 좌익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의 본질은 내전이라고 커밍스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로 참전했다. 주로 일본의 전방 방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남한을 구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워민크로스DMZ의 옹호자이자 지도부인 캐서린 킬러프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는 자신의 가족과 결부되어 있다. 그녀는 “한국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나는 내 한국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여러 측면에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종래의 이야기를 잊기 위해 긴 여정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킬러프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히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매우 놀랄 것이다. 미국 입법자들은 인정하기를 꺼리지만, 미국은 1958년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도입했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후 남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했지만, 이 지역에서 핵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은 기술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고, 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핵무기 현대화와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밍스는 참가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일하면서 직접 자료를 사용하여 스스로 역사를 해석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평화에 대한 희망은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는 현재 미국이 평화를 고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히 손을 씻을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수잔 웰러 김은 미국 메릴랜드주 로컬에 본거지를 둔 프리랜서 기자이다. WCC 홍보국에서 평화와 정의 관련 뉴스를 자주 쓰고 편집하고 있다.

기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의 참 소망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구약의 출애굽 사건처럼 암울한 식민지의 시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땅을 주시는 희망의 주님!
어두운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평화의 주님!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자유를 얻었고,
우리의 공로보다는 당신의 선물로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는 당신을 저버렸고,
당신보다는 외부의 조건과 힘을 믿었기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제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우월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우리는 노력했고
그 노력은 바벨탑처럼 당신의 뜻에 도전하며 분단을 영속화시키는 우리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평화는 항상 자신을 버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를 고집하며, 남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당신과 우리가 하나이듯
남과 북도 하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분단의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평화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최준기 신부**는 대한성공회를 대표하여 EFK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장 민족의 이별



천만 이산가족들

이훈삼 목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사랑은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생명과 시설을 파괴했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평생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죽기 전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은 고문이었다. 이제 이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일상에 감탄한다. 이 감동이 한반도에도 물결치게 하자.

기도

마음속으로만 가능한 사랑보다 더 슬픈 것은 없습니다.
주여, 한반도에 시편의 꿈이 하루속히 현실이 되게 하소서.

이훈삼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담임목사이고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박사

우리는 지난 4월 27일은 남북 정상 합의하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이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대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계획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공존시대의 실현은 바로 15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적십자 운동의 인도주의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과 북의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2년 10개월 만에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남북 총 833명의 가족의 상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눈물로 범벅이 된 만남은 이 기간 중 5번의 남북 적십자회담을 성사시켰고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사이의 상봉은 다음을 기약하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유엔의 제재 등으로 남북의 모든 문제가 얼어붙게 되었고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정부는 다시 재가동의 꿈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가 다시 실현되리라 확신하면서 이 상봉의 그간의 발자취를 잠깐 살펴보십시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중요한 인도적인 현안입니다. 이산가족 교류의 특수성은 시간적인 제한성에 있습니다. 평화협력체계가 완전히 갖춰져 자연스레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산 1세대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의 가족을 찾고자 신청하신 분들은 2020년 3월 말 총 133,382명인데 이중 생존자는 51,837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산가족 1세대는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가 특징인데 최근 몇 년간 사망자 수를 보면 6년간 매년 평균 약 3,800명의 이산가족이 고인이 되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81,545명이며 80대 이상 비율이 65.6%에 달합니다.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 이뤄진 때는 1957년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실향사민 실태조사'를 벌여 7,034명의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하여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였고, 1957년 11월 북한적십자회는 이 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통보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산가족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성과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본 회담 실무회

의 개최(총 56회)를 통하여 5개항(주소·생사 확인, 자유로운 방문·상봉, 서신 왕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 해결 문제 등)의 남북회담 의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1980년대는 이산가족 해결을 위해 3차례 적십자 본 회담을 개최하는 등,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한에서 30가구 51명이, 북한에서 35가구 41명이 교환방문 하는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이후에는 이인모를 북측에 송환시켜주고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북측의 성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당국차원의 교류가 재개되어 2015년까지 20차례 대면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이 이뤄졌습니다. 21차까지의 대면상봉 인원은 남과 북을 모두 합쳐 20,604명(4,290가족)이며 화상상봉 인원은 3,748명(557가족)입니다.

적십자사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십자운동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1952년 토론토, 1957년 뉴델리의 제19차 적십자회의, 1965년 비엔나의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해 결의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9년 제33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도 국제적십자운동의 가족 찾기 활동(RFL: Restoring Family Links) 행동강령에 따른 결의문 제4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분명 더 큰 해결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완결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산가족 교류가 가지는 문화적·민족적 의미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 평화, 생명 공동체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한반도 평화구축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임무일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적십자사는 주위의 여건이 허락되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봉, 화상상봉, 고향방문단 등등을 위한 모든 준비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상봉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경서 박사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권 대사를 역임했다. 박경서 박사는 WCC 아시아 국장을 지냈으며 EFK 창립 회원 중 한 명이다.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

임춘식 목사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한국전쟁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미웠고 전쟁을 일으킨 북이 미웠습니다. 저는 북에 있는 남포의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한국전쟁 중 어머니, 형과 함께 아버지 없이 서울 근교의 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두 살이 채 되지 않았고, 제 형은 저보다 두 살 위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산까지 저를 업고 왔습니다.

한국전쟁은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전쟁 이후 우리가 남한과 미국에서 살 때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의 친척 집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을 떠난 이후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남한과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고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2012년, 저는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북과 남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는 1978년 이후 평양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공고한 관계를 가져왔지만 북에 미국장로교 선교 동역자가 파견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미국장로교와 조그런 간 중재 역할을 맡게 되었고 1년에 두세 차례 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1994년 제 형의 회사는 북에서 경수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현장 감독을 위해 자주 북에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북의 한 공무원에게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형이 그 다음 북에 방문했을 때 그 공무원은 우리의 사촌 동생을 찾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000년, 제 형은 그 사촌을 만났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왜 서울에 오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포의 한 목격자로부터 우리가 탄 배가 미국 군용기에 폭격을 당했고 생존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19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북에 3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고, 나중에는 저에게 동생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2004년 저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남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여러 번 만났고, 이제 그들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했듯이,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는 서울에 있는 아현구세군교회에서 열린 '2018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조그련과 교회협은 함께 기도문을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남북 및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은 매년 광복절이자 한반도가 분단된 날인 8월 15일의 바로 직전 주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춘식 목사는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조그련과 교회협과 함께 일하고 있고, EFK 회원이다. 그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포럼의 창립자이다.

이산가족들의 증언

백승배 목사

한국전쟁은 제가 10살 때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중 저는 아버지와 함께 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세 자매, 이모, 그리고 조부모님 등 나머지 가족들은 북에 남겨두고 떠나 남한의 강화군 교동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국 드류신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섬기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을 만나다

저는 1990년 북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마침내 고향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1990년 10월 12일 평양에 도착했고, 우리는 통일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방문했던 북의 모든 마을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우리 대표단은 금강산을 방문했고, 금강산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24일, 우리는 마침내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재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동생과 처남과 조카들을 만났고, 배천에서는 다른 두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다

저는 여러분이 제 입장에 서는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제 조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었고, 저는 어머니와 40년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1990년 고향 방문은 저에게 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북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산주의자 혹은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저는 통일운동 문제에 대한 내부 분열로 인해 한인 이민자 교구 사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2000년 7월에 저는 영어권 교구에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시민의 북쪽 방문이 금지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안정한 해방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백승배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기도

생명의 하나님,
지난 70년동안 휴전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한반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은 지난 3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분열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구세대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다지기를
또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신세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의 번영을 위해 하나된 한반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 유행성 질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이 지혜롭게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고립되며,
외국인 혐오증 같은 배척과 증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지혜와 기적을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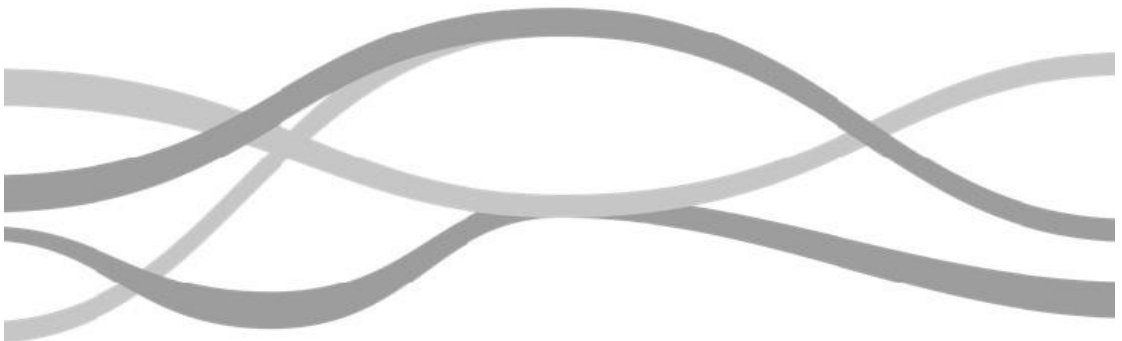


지금의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뻐하고 우리의 뼈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딧 크니스다퍼 (Judith Königsdörfer)는 독일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럽 인종학 박사 후보다.
그녀는 WCC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EFK 회원이다.



5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지혜로운 여성

클라우디아 오스타렉 목사 (Rev. Claudia Ostarek)

아벨 벳마아가의 지혜로운 여성을 알고 계시나요? 그녀는 이름은 없지만, 매우 용감한 여성이자 피스메이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22절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한 남자가 그녀가 사는 도시인 아벨 벳마아가로 대피했습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은 그를 추격했고 반란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그 도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은 이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둔덕을 쌓아 놓았는데, 그 때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마침 성 안에 한 여걸이 있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요압이 나서자, 그 여인이 물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그러면 소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 보오." 여인이 말했다. "옛적부터 하느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시려 하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천만에, 결코 이 성을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사무엘하 20:16-20)

이름 없는 여자는 요압의 군대에 의해 파괴될 위험에 처한 도시를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요압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먼저, 그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치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게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공격자에게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매우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녀는 요압을 장군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서 그의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원학적으로 요압은 고백적인 이름이고 '야훼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부름은 효과가 있었고 요압은 '그렇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그가 정복하려는 도시에 사는 사람

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둘의 공통 기반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그 주장은 요압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만에, 결코 이 성을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비록 이 이야기는 격렬하게 끝이 나지만, 아벨 벳마아가 도시와 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목숨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이라 불리는 이름 없는 이 여자는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여성들처럼 용감합니다. 이 여성들은 지혜롭고 토론에 강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 (전 9:18)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세계 공동체로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길로 걸어 나가도록 거듭 격려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비전인 포괄적인 살롬을 향해 말입니다. 저희에게 전쟁 무기보다 강한 지혜를 주시고 저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여러 방식으로 용감하게 일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힘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이들 사이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전쟁광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이 힘과 영향력을 중시하며 행동하지 않고 인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클라우디아 오스타렉 목사 (Rev. Claudia Ostarek)는 독일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EFK 운영 위원회 위원이다.

여성이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11년 전, 저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 중 하나인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임진강에서 한국 가족들이 다시 하나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때, 한 서클로 모여 있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에서 깨어나 선언했습니다. “여성들이 한국전쟁 종식을 도울 것이다.”

6년 후 제가 세계 각국에서 온 30명의 여성 평화 구축자들을 이끌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뤄지기 바라는 바를 우리의 몸으로 행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가족들을 다시 하나되게 하며, 평화 구축에 여성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한 평화협정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국경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는 DMZ 양쪽에서 10,000명의 여성들과 걸었고 평양과 서울에서 평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5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갈등에 대한 공식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여느 때처럼 험난해 보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

한국전쟁 시작 이후, 한반도와 전 세계 여성들은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951년 5월, 마을에 폭탄이 쏟아지던 때, 17개국에서 모인 21명의 여성 대표단은 참상을 기록하고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¹⁰

또한 한국 여성들은 DMZ을 넘은 최초의 민간인입니다. 1989년 남한 대학생 임수경은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불법으로 DMZ을 건넜습니다. 임수경은 당시 문규현 신부와 동행했고, 이들은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¹⁰ See Suzy Kim, “Beyond Cold War Women: The Peace versus Freedom Debate Revisited,” [냉전 여성을 넘어: 다시 논의되는 평화 vs. 자유] *Social Justice* 46:1 (Spring 2020), 68.

1990년대에, 남북 여성들은 일본 여성대표들과 함께 도쿄, 서울, 평양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근으로 북이 황폐화되자, 남한 여성 평화 단체들은 북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남북 간 '햇볕정책 시대'에는 남북 여성 단체들이 금강산에서 통일 집회를 여는 등 공동행사를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유지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이러한 시민 사회의 참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운동 전개

2015년 우리의 DMZ 종단은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의 인간적 차원을 중요시하며 민간 시민사회 교류를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북의 여성들은 잔혹한 미국 공중 폭격 작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재로 인해 의료에 접근하기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한에서 여성들은 군사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미군들이 '캠프 타운'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답례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와 리마 보위를 비롯한 우리 대표단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 심포지엄을 마치며, 우리는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을 돕는 우리의 역할을 상징하기 위해 조각보를 잇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란히 조각보를 이을 때 북의 여성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종단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여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2016년 발리에서 세계 여성들과 북과 남의 여성들간 만남을 연이어 조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남북 자매들간의 만남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북, 남,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여성들을 모아 동북아시아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을 베이징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는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만남은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2019년 3월, 4개의 여성 평화 단체 - 위민크로스DMZ(Women Corss DMZ),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유엔,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우리 캠페인은 '대북제재로 인한 인적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전쟁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이라는 말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오헤아 쿼타나 유엔 대북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했고, 그는 평화는 인권에 유익하며 비핵화와 무관하게 평화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민크로스DMZ와 Korea Peace Now! 캠페인을 인용하며 우리의 "평화를 위한 헌신"을 언급했고 각 정부에 "이 운동의 메시지를 들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캠페인은 또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에 상당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원결의안 152는 지금까지 45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미국 전역 11개 지부로 구성된 풀뿌리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 덕분입니다.

우리 옹호 활동의 핵심 부분은 정부 관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페인은 캐나다에서 초대 여성, 평화, 안보 대사인 재키 오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우리 캠페인은 남한의 첫 번째 양성평등 대사인 조영숙 대사 임명을 도왔습니다.

여성은 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가

전쟁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관여할 때 그 합의 결과들이 더 성공적이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과 미국에서는 갈등 예방과 관리, 해결 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은 매우 소수입니다.

이제 바뀌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평화 구축자로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 안보는 억압과 불의와 군사주의 구조를 해체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협상과 협력을 통해 해

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 안보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 물, 음식, 집, 의료, 그리고 존엄한 생계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뤄질 것입니다.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선출직 지도자들 앞에서 옹호활동을 하며, 북의 여성들을 만나고, DMZ을 건너는 등 여성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은 위민크로스DMZ 사무총장으로 호놀룰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며 오랜 시간 국제 운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

기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온전히 나를 내어 주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나눔과 베품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지만
체제의 벽에 가로막혀
서로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경제 제재와 자연 재해라는 이중고 속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주소서.

북녘과 남녘의 어린이들이 맘껏 어깨동무하고
여성들이 기쁨으로 손에 손잡으며
생명평화세상을 힘있게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영수 회장은 한국YWCA전국연합회 회장이다.

6장

평화 창조의 영적 차원



담대하게 화해하기

정희수 감독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10-11)

우리는 갈등, 분열, 차별, 원망, 증오 속에서 살기보다는 화해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계획으로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신 분이십니다.

화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화해는 단순히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화해는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를 필요로 합니다. 풀뿌리 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 촉진을 위해 전 세계 교회를 동원하여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 잘 참여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사와 하나님 은총의 신비를 받아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지역적,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언할 수 있게 합니다. 한반도에서 화해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화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화해로 나아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화해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시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WCC의 평화 사역, 한반도에서 영광을 얻다

앤 캐스파슨 (Anne Casparsson)

수십 년 동안,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한반도 평화촉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양측 사람들, 특별히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에서부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WCC는 평화를 향한 비전을 만들고 추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남 간 초기 만남과 화해 과정은 WCC에 의해 일본에서 열린 도잔소 협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WCC와 회원교회들은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북과 남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특별한 역할은 갈등뿐만 아니라 분단과 상호 불신의 긴 역사를 통해 이 지역에 오랜 시간 축적된 관계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사람들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5월 5일, 전 WCC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수여되었습니다.

트베이트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WCC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에게 취임 이후의 경험,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노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총회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촉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전 세계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을 대표하여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교회와 단체들이 계속되는 한민족 분열과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대립을 대신하는 대화의 긴급한 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역할과 관련된 인식과 참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CC 총무로서 제 임무는 그 기간 동안 활발하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지지하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매우 강력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파트너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긴장과 평화로운 변혁을 향한 가장 큰 희망의 시기를 거치며 집중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과 함께 한 과정과 사역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전체 명칭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EFK는 1990년대 북의 기근에 대한 인도적 대응에 참여했던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총회 이후 우리는 이 포럼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2015년 10월 이 포럼을 통해 수행된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EFK 회원들과 참관인들로 구성된 12명의 국제 에큐메니칼 대표단의 방북이었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2015년 10월 28일에 평양에서 EFK 공식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KCF와 NCCK가 공식 참여한 국제 에큐메니칼 모임이 한반도 땅 어딘가에서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대통령은 자신이 WCC의 비전과 역할을 지지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해주었고, 지역의 평화를 위한 계획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통령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그 동안 WCC 총무로서 이 사역에 참여해온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역할을 긍정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으로 최근, 그리고 앞선 수십 년 동안 WCC와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상이 평화 과정에서 교회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준다고 생각합니다.

WCC의 역할은 어떻게 특별한가요?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WCC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WCC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부여된 소명이자 평화에 대한 사람

들의 갈망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계속 이를 우선순위로 삼고 새로운 계획을 취하며 평화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WCC는 이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의 본질과 원천 때문입니다. 평화는 가능하지만, 평화는 외교와 정치적 창조성의 모든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이고도 전례 없는 제재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재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평범한 북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립이 만들어낸 모든 고통과 분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불화를 만들어내는 제재는 해결책의 일부가 아닌 갈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WCC 총무로서 10년 임기 동안 감사하게 생각하는 진전은 무엇인가요?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한반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그들의 가장 깊은 소망과 기도,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깊이 감사합니다. 전쟁과 갈등의 시기에는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북과 남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른 이들의 영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전 세계 교회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평화를 믿고 소망으로 길러진 깊은 헌신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The Most Rev. Dr Olav Fykse Tveit)는 노르웨이교회 의장주교이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WCC 총무를 지냈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에큐메니칼 배경에서 일해왔다. 2020년 5월에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앤 캐스파슨 (Anne Casparsson)은 평화와 정의에 초점을 가진 프리랜서 기자이자 편집자이다. 응용윤리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 스톡홀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일시적인 비관이나 낙관에 치우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날까지 우리 모두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의 감격이 한(조선)반도와 전 세계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한(조선)반도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
세계교회협의회 전 총무
노르웨이교회 의장 주교, 2020년 5월 10일



7장

1988년부터 시작된 공동기도문



평화의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기

제임스 윈클러 (James Winkle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행적인 임기 중,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평화가 가능할 듯 보이는 뜻밖의 순간이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에 충격을 받았던 우리들 중 많은 이들조차 적국 사이에 새로운 친선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환호했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희망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 된 적대감은 다시 나타났고, 트럼프의 동맹국들과 반대국들이 함께 트럼프와 북을 비난했습니다. 준비와 진지함 부족으로 트럼프의 외교력은 약화되었고, 김정은의 도전은 진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많은 전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는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싸워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은 우월성과 땅, 그리고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의 명분은 후퇴했지만,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북미 간의 오랜 전쟁을 끝내는 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평화와 화해,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전쟁, 증오, 절망에서 이익을 얻는 거대한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악마적 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느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고전 10:3-4)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시위하고, 협의하고, 간청하고, 글을 쓰고, 일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화는 쓰라림이나 증오나 적개심을 부추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화해, 타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평화와 화해를 향한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명분이 정의롭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우주적 세력과 맞서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임스 윈클러 (James Winkler)는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회장/총무이고, NCCCUSA를 대표하여 EFK에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

박종화 목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와 집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의 기원을 담은 <공동의 기도>를 예나 지금이나 필수 절차로 삼아왔다. 다만 이를 공적 형식의 <공동기도문>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 평화와 통일운동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예배예전에 포함되는 일은 교회사의 공의회적 결의라는 점에서도 그 뜻하는 바가 크고 깊다.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폭제는 세계교회협의회-국제위원회(WCC-CCIA) 주선으로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정의협의회>(1983.10.19.-11.02.)였다. 물론 당시 “평화”나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민간사용이 금지 시 내지 금지되었던 한국 정치상황에서 KNCC(NCCK의 당시 약어, 이하 KNCC)가 WCC를 통하여 시도한 첫걸음이었고, 거기서 당연히 의제토론과 함께 공동기도는 필수절차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WCC-CCIA가 주선한 남북교회 간의 첫 만남인 <스위스 글리온 회의>(1986.09.02.-05./조선그리스도교련맹 5인과 KNCC 6인 참여)는 공동기도는 물론 공동의 성만찬도 진행했다. 이것이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남북 간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거보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들과 남북의 교회들 상호간의 공동기도와 공동의 연대를 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표명한 것은 KNCC가 발표한 시대사적 선언문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1988.02.29.)이다. 이 선언은 곧 이어 열린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인천 송도, 1988.04.25.-29.)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세계교회가 동참케 하자는 결의로 이어졌다. 우리가 말하는 이 <88선언>은 “남북한 교회의 상호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통일 기도주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었다. 여기서 유념할 사항이 있다. “공동기도문” 작성, “평화통일 기도주일” 설정, “통일 희년”의 설정이 한 묶음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헌신적인 선두주자로 나선 WCC는 <중앙위원회>(서독 하노버, 1988.08.10.-20.)를 통하여 위에 언급한 KNCC 선언과 인천 국제대회가 제기한 “세계 기독교공동체가 남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날’을 연례적으로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한국교회 여성협의회>(1988.04.28.)가 제안한 ‘1995년 통일희년’ 계획과 이를 ‘기독교 여성 향후 10년 운동’(1988-1998)과의 연계제안 등을 수용하여 차기 중앙위에서 포괄적 결의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어서 열린 남북의 <제

2차 글리온 회의)(1988.11.23.-25.)는 남북의 교회가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며, 이 날을 위하여 '공동기도문'을 채택하고, 나아가 세계의 모든 회원교회들이 이 날을 지켜줄 것을 권면하도록 WCC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일련의 남북교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WCC <중앙위원회>(1989.07.27. 모스크바)는 아주 기념비적인 장문의 "정책성명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WCC Policy Statement>를 채택하고 발표했는데, KNCC가 발표한 "88선언"을 비롯한 여타의 각종 후속 선언들을 두루 살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세계 교회들의 참여가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의 도도한 흐름 속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특별히 강조하건데 KNCC가 발표한 <88선언>과 WCC가 발표한 <한반도 정책선언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과 주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해명하고 제기한 핵심 문서라고 보고 필독을 권한다. (참고 자료: 1980-2000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pp.102-110; pp. 159-163).

WCC 중앙위원회(모스크바)는 발표한 <정책선언서>를 통하여 공동기도문을 비롯한 관련 행사에 관하여 이렇게 결의했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 교회가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지키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의체들이 공동기도주일을 지키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비슷한 결의를 같은 해에 모인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WARC, 1989.08.26., 참고 상계서 pp.163-164)에서도 해주었다. 이로써 <공동기도>는 남북의 교회와 세계 각국의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의 "에큐메니칼 공동기도"가 되었고, 기도문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남북의 교회가 합의하여 채택해오고 있다.

<공동기도문>의 모음집(위의 자료집, pp. 445-478)은 남북교회와 세계교회의 공동기도문이다. 그 속에 평화와 통일의 마음과 갈망과 결단이 응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그리고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온 세계의 분쟁과 분단으로 아파하는 모든 곳에 화해와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한다. 한국교회는 이 공동기도문을 들고 1988년 8월 14일 첫 <평화통일 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정동 감리교회에서 함께 드렸으며, 지금까지 온 누리 교회들마다 이 공동기도의 외침이 통일과 평화의 그 날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박종화 목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위원과 88선언 초안위원을 지냈다.

기도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땅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희생을 당했습니다. 내전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분단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DMZ) 안에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던 군인들이 땅속에 묻혀 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랜 세월 이국의 땅속에 묻혀 있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린 일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를 가져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체제 아래서 분단이 극복되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군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싸웠던 아픔의 자리에서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단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곳곳의 분쟁과 아픔의 자리에 희망을 주는 평화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단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보프레임을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해집 목사는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이다.

8장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 활동



어리석은 지혜

장위헌 목사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나무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라. 또 다른 나무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 둘을 붙여서 한 막대기로 만들어라. 둘이 하나가 되게 잡고 있어라. 네 겨레가 너에게 막대기가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에브라임 수중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쓴 나무 막대기를 유다의 이름을 쓴 나무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로 만들리라. 둘이 하나가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네 손으로 이름을 쓴 그 나무 막대기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들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 이제 못 민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리라. 사방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들을 나의 땅 이스라엘 산악 지대에서 한 민족으로 묶고 한 임금을 세워 다스리게 하리니, 다시는 두 민족으로 갈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반으로 갈라져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37:15-22)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18, 22-24)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슬기로운 동시에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분열된 사람들과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막대기 두 개를 하나 되게 잡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분단과 지배 세력 앞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손으로 막대기 두 개를 쥐고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순진해 보입니다. 에스겔은 이 명령을 듣고 슬기롭지만 또 매우 어리석다고 느꼈을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단된 나라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단지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분단된 나라와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는 우리나라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사람들의 깨진 마음을 우리 손으로 붙잡고 아무리 어리석고 힘없어 보여도 절대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한반도와 모든 땅에서 분열되고 고통 받는 모든 것을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와 기도의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증오 속에 갈라놓으려는 모든 것을 어리석지만 단단하게 평화와 화해의 손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분열의 세력에 의해 사용된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와 역사는 두 개의 막대기로 나뉘어 있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

나누어진 남북의 손과 마음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잡아주시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을 화해와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장위현 목사 (Rev. We Hyun Chang)는 연합감리교회 뉴 잉글랜드 커먼웰스 동부 연회 지방감리사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옵저버이자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위원장이다.

믿음과 치열한 인내

-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연대하며

패티 탈봇 (Patti Talbot)

캐나다연합교회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연대하며 한국(조선) 민족의 70년 분단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과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치열한 인내에 영감을 받은 연합교회의 헌신은 두 가지로 특징지어집니다. 파트너들, 특히 여성 파트너들의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증폭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과 캐나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리더십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영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120년 넘게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교육과 건강,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 응답해왔습니다.

오랜 헌신

캐나다감리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가 설립한 두 교회를 통해, 한국인들과 연합교회의 역사는 1898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에 캐나다 한국선교부가 설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선교부는 기독교 전도와 함께 한국인들, 특히 소외된 한국인들의 복지에 헌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선교부는 건강(치료소, 병원), 교육(특히 여학생들과 빈곤 여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리더십 개발과 역량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1986년 이후 30년 넘게 연합교회는 남북 기독교인들 간 만남을 촉진하는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에 동참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채널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호 방문과 사람 간 만남, 대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가장 큰 긴장이 발생해 거의 모든 다른 통로들이 닫혔던 기간 동안에도 에큐메니칼 채널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한 차이를 넘어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오랜 기간 함께 견뎌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

그 동안 남북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남북 여성 기독교인들이 모일 기회는 거

의 없었습니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 포럼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 여성들이 한반도 땅에서 모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분단으로 상호 이해에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관계와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1991년 포럼은 가부장적 문화 속 여성, 통일에 있어 여성의 역할, 여성과 평화 만들기에 대한 토론을 포함했습니다.

좀더 최근에, 캐나다연합교회는 2001년, 2004년, 2017년 남북 여성 간 모임을 주최하기 위해 남북 여성들과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계획대로 모임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2001년, 여성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 연대”라는 주제 아래 모였습니다. 2004년에는, 마지막 순간에 북쪽 여성들이 참석할 수 없게 되면서 북측 참여 없이 토론토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북남 기독교인 여성들이 참여한 모임이나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여성들이 관계 구축을 위한 고유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남북 및 한국인 디아스포라 자매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여할 때 평화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평화 과정에 참여할 때 ‘누가 이기느냐’를 넘어서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폭력의 결과와 가족, 공동체, 사회 및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여성들은 공동체와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화해를 촉진하고 모델화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참여합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공언한 여성주의 외교 정책에는 평화와 군축, 성 정의, 개발, 인도주의, 인간 안보, 그리고 인권 증진에 대한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여를 회복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당시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전략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 목소리를 보냈던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실패한 전략입니다.

한국인들과 연대하는 캐나다연합교회의 헌신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70년이 지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와 화해를 위해 “최대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는 믿음 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에 있어 충실한 제자도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세계 에큐메니칼 가족들과 함께 참여와 대화를 촉진하고, 제재

에 도전하며, 갈등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는 국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을 지속합니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포괄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캐나다 정부가 여성주의 외교 정책 의제에 따르면 평화를 향한 과정에서 여성 네트워크와 더 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남북 여성들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살리기 위한 책임

믿는 사람들은 다루기 어려운 불의한 문제가 있을 때 희망을 살려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가복음 18:1-5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비유는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재판관의 선의나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끈질긴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끈질긴 인내, 즉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인내는 변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손이 다가올 일을 위해 강해지기를,
우리의 가슴이 치열하게 인내하기를,
우리의 눈이 약속된 정의를 보기를,
우리의 귀가 쉼과 회복의 소식을 듣기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춤 추기를 기도합니다.*

패티 탈봇 (Patti Talbot)은 캐나다 토론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캐나다연합교회 직원이다. 캐나다 연합교회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분단된 한국(조선)인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 독일교회와 선교

루츠 드레셔 (Lutz Drescher)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 대표단을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교회의 날'(Kirchentag)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독일과 한국 모두 분단국가였습니다. 불과 6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했다면,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독에서의 시위와 평화 집회에 이어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민주공화국(DDR)은 국경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은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아마도 한반도 통일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일교회 선교와 한국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두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인들은 30년 동안 다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분단된 남북 한국(조선)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향한 그들의 여정에 동행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교회가 처음 교류했던 1960년대 후반 이후, 교류의 중심에는 군사독재 저항과 인권을 위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은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에서였습니다. 이 협의회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Peace and Reunification Department)를 설치했습니다.

1984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했고, 독일 교회와 선교사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잔소 프로세스에 대한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남북의 정세 변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독일의 통일과 동반 성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면밀히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흡수 통일 모델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북의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1995년부터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디아코니아 긴급구호(German Diakonie Emergency Aid)는 구호 지원, 개발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 남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참여로 인해 투옥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은 지난 세기에 일어난 감동적인 희망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 여전히 만연했던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햇볕 정책으로 잘 알려진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독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재)수립했고, KCF와 NCCK 공동 대표단은 프랑크푸르트 교회의 날 방문 기간 동안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2년 초 조그련은 슈투트가르트 독일복음선교연대(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EMS)에 초청장을 보내 독일 대표단을 북에 초청했습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첫 번째 방문은 2002년 5월 조그련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표단에는 교회, 선교단체, 디아코니아 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현실에 대해 종종 폭로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은 2005년에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며 독일교회 고위 대표단이 북과 남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휴전이 이뤄졌던 판문점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북측에서 방문했고, 며칠 후에는 남측에서 방문했습니다. 단 몇 걸음이면 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베이징을 거쳐 3,600km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 독일인들은 한반도 분단이 이전 독일 분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심각하고 엄혹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국제회의

이번 세기 초에는 조그련의 독일 방문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우리의 동기는 북과 남의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논의하고 기도하며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논의와 속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 3월 NCCK와 KCF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아놀드샤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종 선언문에서 다시 확인한 대로 이 회의는 도잔소 프로세스의 전통 위에 서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에큐메니칼 포럼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는 구 동독과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북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동독 국가가 모였던 장소인 공화국 궁의 폐허 앞에서 우리 북쪽 친구들이 서있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국제회의가 2008년에 다시 아놀드샤인에서 열렸습니다. 제목은 “평화, 통일, 사회 개발 - 한반도 미래 모델”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정치, 학계,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한국(조선)인 참가자들과 교회 관련 참가자들 대부분이 무엇이 가능한지, 얼마나 많은 협력 채널이 이미 열려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큐메니칼 포럼 참여

이 회의 후에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2006년 홍콩에서 에큐메니칼 컨소시엄으로 출범했습니다.

초기 형성 당시 북측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회의는 북측 사람들이 계획 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NCKK 회원교회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지지 선언을 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교회로서 에큐메니칼 포럼의 권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EFK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개발협력이라는 두 축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북측에는 첫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EFK 회의는 더 열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남한 보수 정권이 대북 협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EFK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WCC 부산총회를 준비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평화와 화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WCC 주도 하에 EFK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개에 참여하게 된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KCF와 함께한 나의 여정은 1989년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예배에서 포스터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정말 특별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과 분단 표시가 없는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나는 한국(조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남북이 서로 포옹하고 서로를 자매와 형제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루츠 드레셔 (Lutz Drescher) 선교사는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동역자로 일했고 슈투트가르트 독일 복음선교연대(EMS) 동아시아협력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German East Asia Mission) 회장을 맡고 있다.

기도

하나님,
글쎄 남과 북이 갈린 지도
벌써 70년이 다 되어간대요.

우리 엄마아빠 나이보다 더 오래
이 땅이 갈라져 있었다니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원래 하나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형제자매로 얼싸안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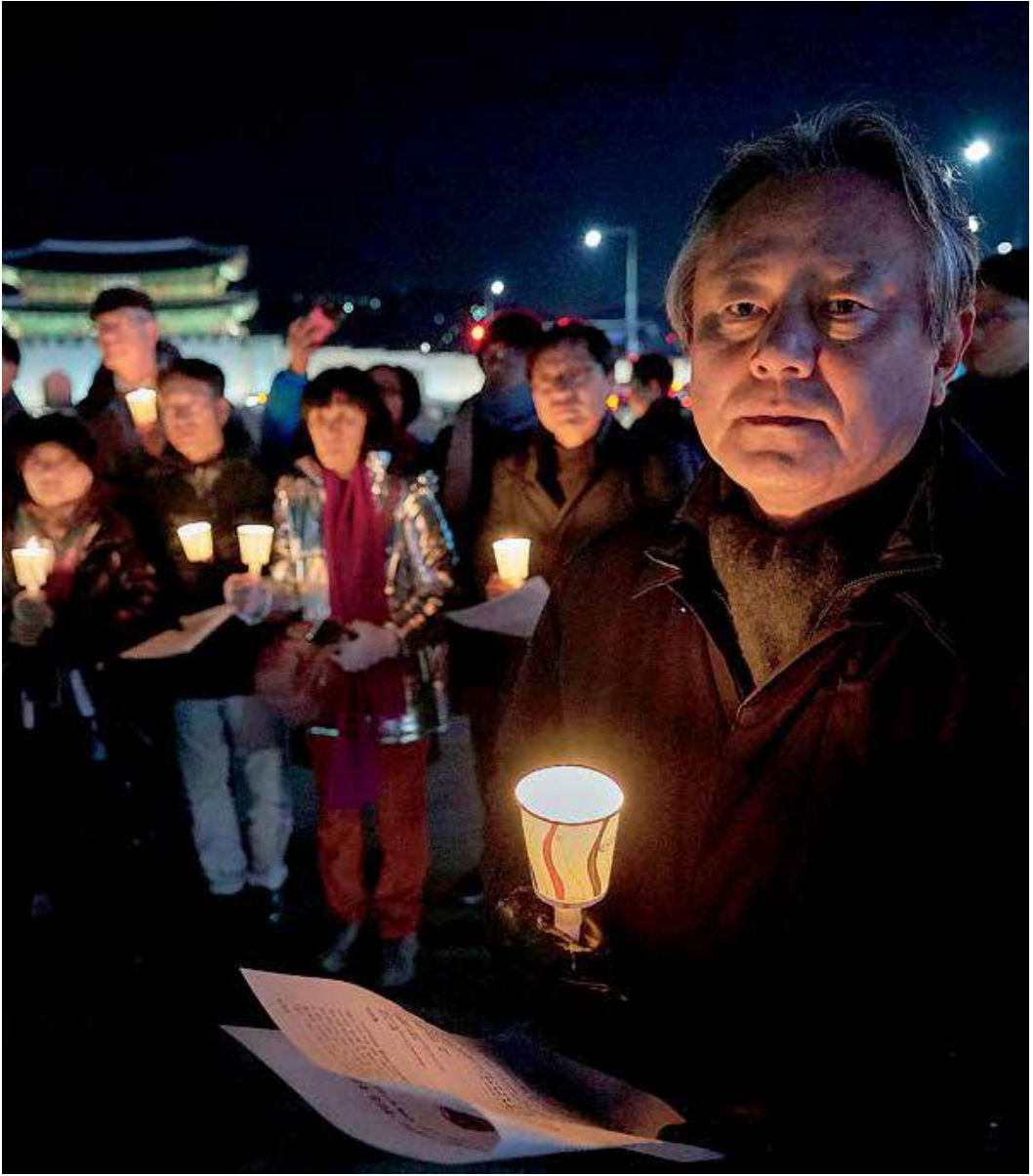
그 동안 서로에게 잘못된 건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는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예빈 어린이는 세계기도운동 어린이 기고자로 서울 대림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9장 세계기도운동



한반도 민의 정의 위에 서는 평화

데이비드 그로쉬밀러 목사 (Rev. David Grosch-Miller)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열왕기상 19:12)

엘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느끼고 그에게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의 위협을 피해 도망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리고 소망이 계속 좌절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곳은 낙심과 두려움, 상실의 광야 속입니다. 우리는 기도 훈련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와 바람, 지진, 그리고 불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침묵은 우리가 집중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 문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집중을 잃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연결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전 세계 자매와 형제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한반도 민의 정의 위에 평화를 세울 것을 요구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합니다.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평화로 가는 길에 실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소서.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때,
침묵으로 하여금 함께하는 사랑과 하나된 소망을 말하게 해주소서.

데이비드 그로쉬밀러 목사 (Rev. David Grosch-Miller)는 영국 연합개혁신교회 증경총회장으로 노섬벌랜드 모페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합개혁신교회를 대표하여 EFK에 참여하고 있다.

기도는 평화의 열쇠

매리안느 에저스텐 (Marianne Ejdersten)

우리는 한반도를 위한 세계기도운동이 용서와 화해를 배양하는 문을 여는 평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연대를 다시 활성화하는 원천이 되고, 70년 만에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일하고 걷고 기도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와 투명성을 요청합니다. WCC의 신뢰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입니다. 라틴어 *communicare*에서 파생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동성을 만든다”는 뜻이고, 공유하거나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WCC의 분명한 미션입니다. WCC의 커뮤니케이션 사역은 공통의 명분을 만들고 공유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교회들 및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비전은 WCC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예언자적 목소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은 교회와 경계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속에서 분명한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동료, 회원교회,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팀이고 교회 경계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은 그러한 한계를 넘게 만들고 사역과 영감을 위해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며 함께 걷고 삶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잠시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이야기에선 교회 방문, 연대 방문, 총무 방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고 각 장소마다 있는 교회의 삶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공동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목소리가 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즉 모든 사람, 소수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역적이고 국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은 단체의 정신과 활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은 활동과 함께 가야 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의 한 주요 임원은 나에게 WCC가 세계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120개국 350개 회원교회, 5억 8천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거대한 플랫폼이 맞습니다. WCC는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교회,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일하며 차이를 만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조정과 기획, 시기 선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옹호 활동과 기도는 매우 잘 어울리는 두 요소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백 개 교회와 파트너들 사이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최근 계획들에서 증명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기근 종식을 위한 기도운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의 7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19년 11월 18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68회 총회에서 세계기도운동의 시작을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을 “희년의 해”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CCK는 또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와 통일을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20년은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장소로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WCC는 2013년 부산에서의 제10차 총회 이후, 분단된 한국(조선) 사람들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향한 에큐메니칼 노력을 증대하기 위해 그 지지와 헌신을 갱신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속된 이 기도운동을 통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종식하자!”

세계기도운동은 2020년 2월 6일 WCC가 제네바에서 주최한 실시간 중계 행사로 시작되었고, 같은 날 워싱턴 DC와 서울에서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과 NCCK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기도운동은 또한 핵 없는 세계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요구도 공표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 프로세스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도문과 성경 공부 자료 등이 마련됐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활용될 수 있는 옹호 자료와 함께 이 책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교회'가 발간되었습니다.

기도운동 기간 동안, 전 세계 교회들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분단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삶을 실천해온 사람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계기도운동의 목표

-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기도의 힘을 키우며 기도한다.
-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희망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장한다.
- 한반도 평화, 치유 및 화해, 그리고 세계 평화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배운다.
-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의 희생자들이 가진 상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평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전 세계 교회들 사이에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연대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한다.
-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한다.

WCC는 1984년 이후 매년마다 기독교인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KCF 중앙위원회와 NCK는 매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전통적으로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폭력 접근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다면적입니다. WCC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평화를 만드는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믿음과 신뢰를 조성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입니다. 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방법이자 전략이고 커뮤니케이터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랑의 운동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랑, 돌봄, 그리고 생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사역의 핵심은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인간의 존엄성이 승리하는 더 나은 세계에 대한 희망을 점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NCK 총무 이흥정 목사의 요청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한반도의 동료들과 함께 세계기도운동을 만들어갔습니다.

나는 평화, 정의, 커뮤니케이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기도와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70년 된 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종식합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9

매리안느 에저스텐 (Marianne Ejdersten)은 2014년부터 WCC 홍보국장을 맡고 있다. 스웨덴 국적이며 직업은 기자이다. WCC의 커뮤니케이션, 출판물, 언어 서비스 및 아카이브 분야에서 기획 책임을 맡고 있다. 그녀는 WCC 직원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다.

기도

생명의 하나님!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조국 한반도에 살든지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져 이국 땅에서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한국인(조선인)이며 친구로서 모두가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를 일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기와 무기가 없고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용기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서로가 공감하는 마음과 서로를 기다려 주는 인내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기만과 욕심과 근절하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계 공동체로 엮인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풍성함과 축복을 나누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과 장애물을 과감히 허무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한반도의 화해, 화합, 지속적인 평화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일구기 위해 앞서 걸어가신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평화의 일꾼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분단된 조국이 하루 속히 하나가 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던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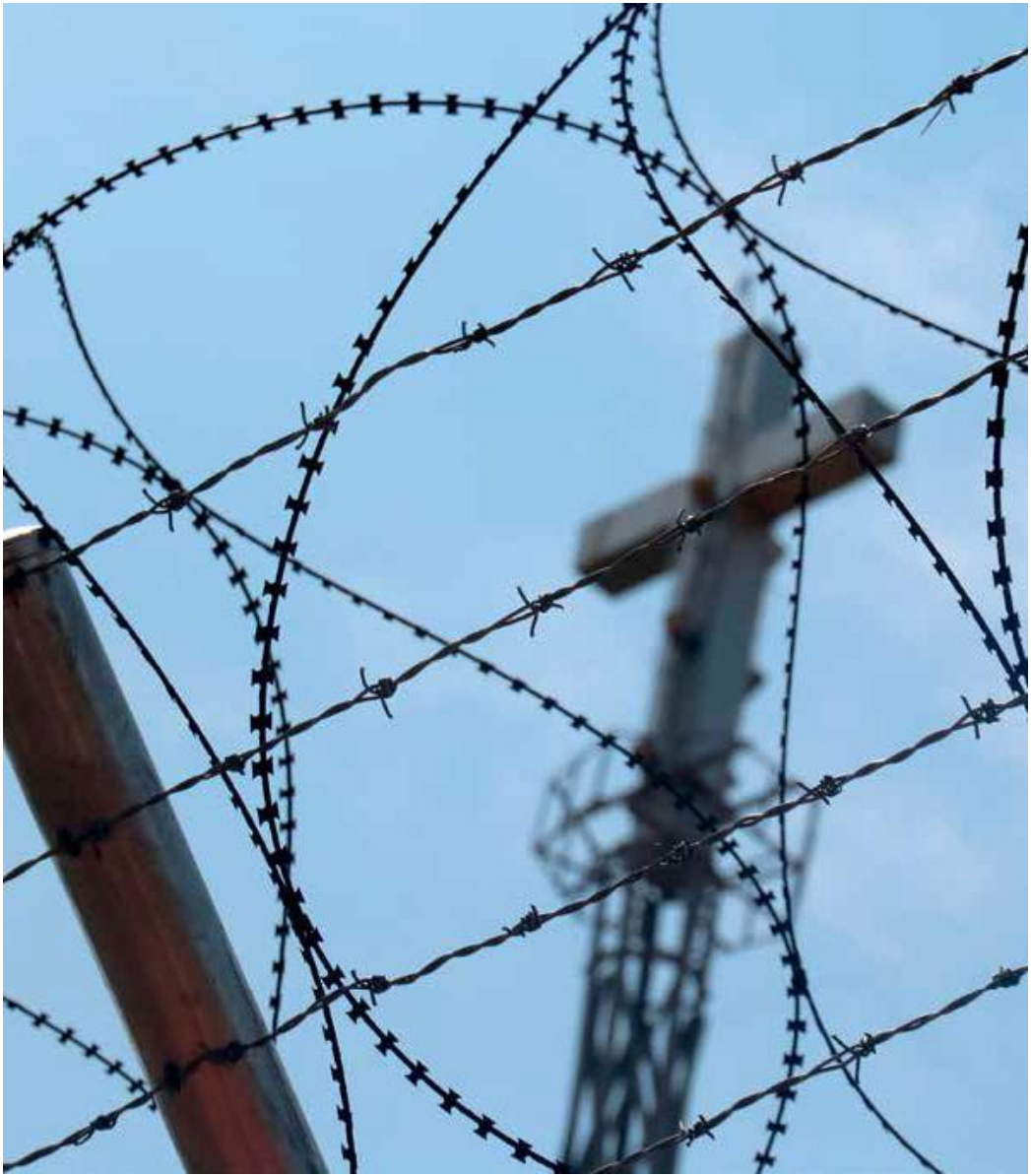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워민크로스DMZ **최애영 이사장**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 상담소(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고,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이다.



10장

한반도 교회 앞에 놓인 도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실한 변민

남부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로마서 9:2-3)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의 변민은 위 본문에서 표현된 사도 바울의 마음 속 끊임없는 변민과 많이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가 동족을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나누어진 절반의 동족과 화해하고자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갈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잔소 프로세스라 불리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WCC를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국제위원회(CCIA)의 조정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화해, 평화 구축, 통일을 향한 공동의 여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으로 맺어진 결실을 함께 목격하고 찬양합니다. 도잔소 프로세스는 1986년 글리온 회의, 그리고 1988년 역사적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
화해, 평화 구축, 그리고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YMCA아시아태평양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은 홍콩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EFK 회원이며, 한반도 평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의 화해: 갈등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도전들

금주섭 목사

역사학자들은 이미 냉전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양극화 세계는 막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한 쪽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분단체제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지난 세기의 낡은 이념 갈등이 계속해서 그 희생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5년 동안 살아온 분단 세계의 광기는 판문점 내 열린 파란색 가건물 4개 동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선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 선은 세계에서 가장 관통이 불가능한 선입니다. 이 선은 두 체제와 두 이념, 두 세계관을 분리합니다. 이 선은 두 개의 정부를 요새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군사기구를 정당화합니다. 이 선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을 나눕니다.

양쪽 방향 어디든 이 선을 건너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통일을 향한 전반적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끊어진 철도는 곧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화해를 위한 상호 신뢰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을 과감히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의 신호는 지난 해 초에 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파탄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생겨났고, 한반도 전역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악의 축'이라는 개념과 대북 경제제재는 한반도 화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남북의 노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대화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독단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

남과 북의 교회들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괄목할 만한 공헌을 했습니다. 북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은 강대국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화해의 여정을 계속할 것을 자

국 정부에 독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종료한 것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미국 측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교회는 모두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CC는 남북교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국제위원회는 통일을 향한 남북교회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중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당화

남북교회와 WCC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전쟁 동안 경험한 값비싼 배움의 결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교회가 모두 전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교회는 6백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은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WCC 또한 “한국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1950년 7월)에서 미군의 전쟁개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남북교회와 WCC는 교회가 동족상잔의 전쟁을 신성한 전쟁으로 정당화한 것은 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누는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했다.

이 고백 이후 한국교회는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통일 문제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북쪽 사람들과의 민간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평화를 향한 기독교인들의 행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분단을 신앙 고백적 (status confessionis) 상황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민주 정부가 수립되었고 새 정부는 대북 정책에 기독교적 화해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여정에 대한 자신감

그러나, 이 화해의 여정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함께 이루어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북쪽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파트너 교회들은 우리를 함께 초청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북을 방문했고, 우리가 기도와 예전을 교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여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 전,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으로 일할 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로몬드 호수 근처 작은 마을을 여행하며 그 마을의 작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맞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멋진 기억은 한반도 분단선인 비무장 지대에 대한 나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상황 속에서 화해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분단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명을 급진적 회심, 메타노이아(metanoia)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여정이 언제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교회의 중대한 회심을 필요로 합니다. 화해 사역은 모호한 신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듯이 한반도 상황 안에서 구체적이고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섭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대학원 교수이다. WCC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 국장을 지냈고, 에큐메니칼 청년운동을 시작한 이후 한국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88선언)의 동기와 내용

서광선 목사

88년 하계 되면 올림픽도 있었고, 그 해 처음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 유신 대통령 장충체육관에서 선출하는 유신 시대의 대통령 선거가 없어졌다. 1987년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수정하는 민중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1988년 2월,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취임하였다.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NCC 총회가 열렸다. 김형태 연동교회 담임목사가 NCC 평화통일위원장이었다. 김형태 위원장이 88선언문을 끝까지 낭독하고 다같이 기립해 박수를 치며 통곡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비극으로 끝나고 교수들, 지성인들이 전두환 신군부한테 당하고 교회도 당하고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복지부동하고 무서운 것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았고 대학교수들도 강제 해직되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숨어 있으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광주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반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구나 하는 통렬한 자기비판이 생기면서 우리도 교회도 통일 문제에 씨름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 모여 NCC의 평화통일 백서를 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백서 기초위원으로 9사람의 기초위원이 선정되었다. 그때 선교 교육원장이 오재식 선생이었는데 오재식 선생이 조직한 9인 기초위원은 다음과 같다. 오재식, 강문규, 이삼열, 김용복, 홍근수, 노정선, 민영진, 김창락, 서광선 등.. 그렇게 9사람이 선정되어 백서를 기초하였다. (후에 기장의 박종화박사가 참여하였다) 1년 이상을 비밀리에 회동하여 1988년 2월 29일, 그 전문을 NCC 총회에 제출한 것이다.

1년, 2년을 연구하고 윤곽이 잡혔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자고 해서 **첫 번째는 신학적인 부분**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이나 선교 신학이 무엇이나를 밝히는 부분, 여기에 세 사람이 붙었는데 주관을 서광선이 맡았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남북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주관을 이삼열 박사가 맡았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통일운동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교회의 역할 부분을 김용복 박사가 맡았다. 분과로도 모이고 분과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세 분과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하는 역할은 서광선이 담당하게 되었다.

1.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 이것이 전체 흐름이다.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분단 70주년 선교적 사명이 뭐냐, 분단 70년 동안의 선교적 사명이 평화만이 아니라 일제하의 기독교 운동이 평화 운동이었다. 3.1운동이 독립운동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3.1운동의 메시지가 평화였듯이 기독교가 참여하고 공헌한 것은 평화 선교였다.¹¹ 한국 기독교의 지난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의 선교적 사명은 평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현실은 ‘현대 세계의 정치 구조와 이념 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분단 자체가 죄라고 했다. 나아가서,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을 제안한다. 첫째, 분단 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둘째,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주적 통일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였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상화해 왔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처절한 죄책고백이었다.

2.

다음 부분이 민족통일의 정치적인 부분이다. 한국교회가 통일·평화운동을 하는 데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2년 남북이 최초 합의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교회에서 내놓은 것은 **첫째 인도주의 원칙, 두 번째 통일논의에 대한 민중의 민주적인 참여**를 제시했다.

이 정치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의 4가지 제안이다. **첫째,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군 철수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회복이 확

¹¹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한 민중 항쟁이었다.

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미군이 철수해도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군축을 하자’이다. 네 번째가 비핵화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1988년에 제시한 위의 네 가지 제안 중 오늘, 2020년까지 이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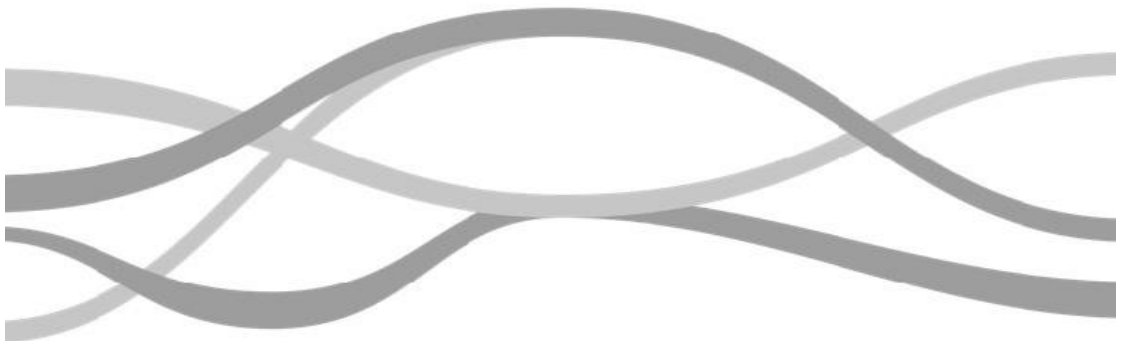
88선언의 세 번째 부분은 한국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1995년, 즉 해방 50주년의 해를 “한반도 희년의 해”로 선포한 것이다. 88선언은 “희년은 ‘해방의 해’이다”라고 하면서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 된 자를 해방하고,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해(레25:11-55)이다”라고 선언했다. 88선언을 발표한 후 7년이 되는 1995년에는 적어도 위의 4가지 통일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이었다고나 할까. 1988년으로부터 32년이 지난 2020년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미국과의 협상은 있었으나, 위의 4가지 제안 중 하나도 구현된 것이 없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념적으로 사분오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신학적 갈등으로 남북분단의 극복이나 평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아직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서광선 목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학장, 세계 YMCA연맹 총재를 지냈다. NCKK 88선언 초안위원 주필이다.

기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 실현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910년, 일본 정부는 강제 병합으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정책의 중심에는 일황의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36년간, 일본 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박해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렸고, 전쟁이 끝나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할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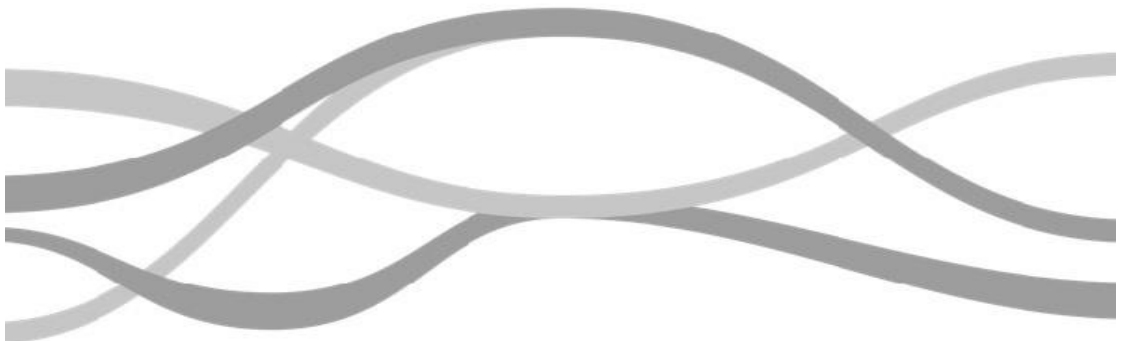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직면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침범하고 박해하고 불법 점령했을 당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본 정부의 전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평화 통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과 남, 일본이 평화 통일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창조자이자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여 빈곤, 차별, 박해 문제 등 공동 과제를 위해 협력하고 소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따라 “화해의 임무” (고후 5:18)를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이이즈카 타쿠야 목사 (Rev. IIZUKA Takuya)는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동아시아화해와평화위원회 위원장이다.



11장

평범한 한국(조선)인들에게 미친 영향



최대의 참여

김진양 목사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대북 “최대 압박” 경제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고, 평범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정책과 달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운동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사람과 사람 간 만남을 촉진하며 인도주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의 참여를 최대화합니다.

시편 34편은 선과 악의 비교를 사용하는 지혜의 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할 의무에 평화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더해집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정도는 악한 행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대로 평화는 반드시 찾고 추구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힘에 저항하고 세상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라고 부름 받습니다.

기도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순례자가 되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길에 신실하게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세상을 향한 사명 안에서 함께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김진양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노력에 참여해왔다. EFK 협력 코디네이터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CC 정의평화순례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다.

분단과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

서보혁 박사

한국전쟁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냉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200만 명 이상¹²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십만 명이 고아가 되었고 남편을 잃었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숫자는 남한 120만, 북 100만 명이다.¹³

이산가족이란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는 납북인, 월북인, 월남인, 전쟁 포로, 북 정치범, 외국인, 탈북인 등이 포함된다.

이산가족은 450만에서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한국 인구 3,000만 명의 15~20%에 이르는 숫자다. 북으로 돌아가지 않은 약 8만 명의 전쟁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 1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이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돼 있다.

이산가족들, 20년 내에 사라질 것

좁은 의미의 이산가족은 월남인들과 월북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한반도 분단 이후 가장 많은 겪은 고통을 겪었다. 이산가족들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휴전 이후 서해상에서는 끝없는 충돌이 일어났다. 육지에만 군사경계선이 표시되었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남쪽의 많은 어부들이 실수로 북쪽 바다에 침범했고,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들은 간첩으로 의심을 받으며 반공법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어부들과 그 가족들은 고문을 당했고, ‘주홍 글씨’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거부당했으며 일부 가족들은 흩어지기도 했다.

¹² Allen R. Millet. *Korean War 1950-1953* [1950-1953 한국전쟁]. 20 July 2020, www.britannica.com/.

¹³ 같은 책에서

¹⁴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3명의 납북 어부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의해 조사된 사건은 5년 동안 10건에 불과했다. 분단을 조장하는 이들은 남한 군사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및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탈북인들

이산가족은 전쟁보다도 분단체제로 인해 더 많이 발생했다. 탈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탈북인들은 식량 부족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측 영토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나은 생활을 찾기 위해 또는 북의 암시장에서 불법 무역을 하기 위해 등 다양한 탈북 동기를 갖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인한 대규모 탈북 이후 탈북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다양해진 동기로 탈북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6월까지 한국에 온 탈북인은 3만 3천여 명으로 그 중 72%는 여성이다. 브로커들의 조언에 따라 탈북인들은 서방 국가로 도피하기도 했다.

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친 인도주의적 영향

북은 연이은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로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에 직면해 있고, 냉전 초기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 냉전 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북은 제재를 해제 받지 못했다. 심각한 식량 부족에 더해, 제재 체제는 북쪽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상태를 악화시켰다.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가 통과되었고 이 결의에 따라 제재 정책을 수행하는 “1718 제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전달을 위한 인도주의적 예외를 규정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의 50% 이상이 목표치에서 벗어나거나 대상 그룹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의도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제재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북은 대표적 사례이다.

¹⁵ Thomas Biersteker, Peter A.G. Van Bergeijk, Sara Bazoobandi, Richard Connolly, Francesco Giumelli, Clara Portela, Stanislav Secrieru, and Peter Seeberg. *On Target?: EU Sanctions as Security Policy Tools* [안보 정책 수단으로서 EU 제재는 목표에 도달했는가?]. Report. Edited by Dreyer Iana and Luengo-Cabrera José.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 2015. 17-28. www.jstor.org/stable/resrep07074.6.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가 발표한 보고서¹⁶에 따르면, 북쪽 인구의 40% 이상인 1,100만 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물, 보건 위생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겪고 있다. 유엔 전문가들은 최근 약 1,000만 명의 북측 사람들이 식량 부족과 의료 부족에 노출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필요한 물품 중 금지된 품목에는 살균기, 소독용 UV 램프, 구급차,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구 및 정형외과 기기, 초음파 기기와 심박동 기록기와 같은 의료기기, 주사기, 바늘, 카테터(체내에 삽입하여 소변 등을 뽑아내는 도관), X선 기기, 정제수 제조장비 등이 있다.

현재의 제재는 의도한 목표인 힘있는 특권층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인 북의 노동자들, 특히 의료 용품과 식량, 기본 생활에 필요한 연료를 구하기 어려운 벽지에 사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서보혁 박사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이자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이다. 정책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참여해왔고,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¹⁶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대북제재로 인한 인적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Korea Peace Now!, Oct. 2019, koreapeacenow.org.

기도

천지만물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천지 간에서 제일 아픈 곳이 지구 별이 되었습니다.

Corona 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통이 계속될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한 문인이 썼다는 글에서,
“아무 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인류가 흔들리고 있으며,
서방의 강국들이 아무리 해도 얻어내지 못한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전투중지나 휴전을
지금 이 조그만 미생물이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전쟁으로 내몰고, 힘없는 나라들을 수많은 내전으로 몰면서 생산해온
거대한 무기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기. 바이러스. 기후문제.
우리의 탐욕과 잘못된 삶 때문에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어
욕심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70년 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단의 땅 한반도를 기억하소서.

놀랍고 오묘하신 하나님!

이제 한반도를 회복하시어, 지금까지 겪어왔던
온갖 전쟁과 갈등과 빈곤의 고통 속에서 얻어진
지혜와 인내, 사랑의 마음을 온 세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당신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더욱 깨닫고,
힘 있는 자나 약한 자가 지구 집의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면서,
이 시간을 모든 나라가 함께 손잡고 이겨내게 하소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그 일에서 두뇌처가 되도록,
하루 속히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가 자리하도록,
온 세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은선 박사는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이다.



12장

교회의 기억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오랜 여정

로즈마리 워너 주교 (Bishop Rosemarie Wenner)

평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연결된 기독교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 순례의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정의 협의회였습니다. 집중적인 대화와 기도 후에 참가자들은 평화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6년 북과 남의 기독교인들과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은 스위스 글리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 도잔소 프로세스는 한반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면 대화를 나누고, 북과 남을 방문하는 일과 기도와 옹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와 핵군축이 실현될 것이라는 비전을 함께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나는 분단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유대가 갖는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한반도의 자매와 형제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만 있을 뿐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군국주의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잔소 프로세스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계속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와 기관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올해 중요한 기념일에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 한반도 형제자매들의 인도를 따라 기도와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소망을 낳다: 도잔소 영성

에릭 와인가드너 (Erich Weingartner)

일본 도잔소의 YMCA 컨퍼런스 센터는 1984년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CCIA)가 주최한 협의회가 열린 장소였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대담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남한 교회 지도자들은 남한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일들을 WCC가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그들을 대신하여 북쪽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함께한 남북 간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도잔소 프로세스로 알려진 만남입니다.

도잔소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제는 국제위원회가 소집한 스위스 글리온에서의 일련의 만남을 시작으로 북과 남의 기독교인들이 직접 대면하여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 첫 번째 만남 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분단 후 이루어진 직접적인 만남이 일으키는 정서적 충격을 목격했습니다. 양측의 엄청난 편견과 불신,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모임은 성찬을 마무리하는 동안 눈물의 포옹으로 끝났습니다. 참가 대표들이 서로에게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이라고 말하자 분단의 벽은 흐르는 눈물 속에 녹는 듯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성령의 힘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리온에서의 만남 이후 전 세계 교회들은 인상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회의에서 KCF와 NCKK 대표단을 모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대표단들은 남북 양측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양측이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각자의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언론에 알렸고, 한반도 분단의 비극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뉴스를 배포하며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도잔소 프로세스에서 강조해야 할 두 번째 측면은 공동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잔재입니다. 한반도 분단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은 한국(조선)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잔소 프로세스에서 “동행”이 주요한 신념 중 하나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동의 책임은 우리가 분열에 대한 공동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사이의 분열, 한반도의 분열, 그리고

지구 전체에 걸친 인류의 분열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불평등하게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도잔소 프로세스의 세 번째 핵심 원칙은 분단 양측이 동시에 통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쪽과의 이야기만으로 정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지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양측이 동시에 대면 참석하여 합의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북측하고만 관련을 맺기로 정한 기독교 교회와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측하고만 관련하기로 결정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잔소에서,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은 동시에 양측과 관계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남북 간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잔소 프로세스에서 배운 교훈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1. 1984년 도잔소 협의회는 한반도 분단과 현재의 중간 지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통일을 위한 투쟁은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분단은 오늘날까지 계속 불안과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평화를 위한 투쟁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하나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통일을 위한 투쟁은 하나입니다. 어떤 투쟁도 혼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투쟁은 다른 투쟁을 보강합니다. 투쟁의 적 또한 같습니다.
3. 통일을 위한 투쟁의 주역은 한국(조선)인들 자신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해 투쟁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한국(조선)인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과정을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외부 세력들은 화해를 향한 한반도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4.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조선)인들의 투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가능할 때마다 남북의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연락을 맺고 유지해야 합니다.
5.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구적 일치도 국가적 일치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오이코스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의 일치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기독교의 사명은 기독교 팽창주의나 교파 우월주의를 통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7. 평화를 위한 기독교적 노력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따라서 모든 창조와의 일치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행동 방침이기도 합니다. 분열된 노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의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가장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8. 에큐메니칼 행동은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기여는 자기 평가, 자기 비판, 그리고 우리 내부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9.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보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10. 교회 기관들은 북쪽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하도록 자신들의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과거 도잔소 프로세스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1995년에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오르락내리락 했고, 남북 관계는 그 후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과제는 그야말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직 힘과 강압적인 압박으로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로의 길은 어려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결의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잔소 훈련”이라고 부르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들은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낳는 사랑입니다.

에릭 와인가드너 (Erich Weingartner)는 전 CCIA 국장으로 1984년 도잔소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정의협의회와 남북 기독교 대표단의 글리온 회의를 세 차례 주최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식량지원 연락사무소(Food Aid Liaison Unit) 초대 책임자,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회 창립 회장을 역임했고, CanKor 정보 서비스를 설립해 편집장을 맡고 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상보다
전쟁을 도모하는 데 익숙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인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70년의 전쟁 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의와 평화를 증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의심과 증오를 극복하도록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
화해의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그리고 곤경에 처한 모든 세상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에릭 와인가드너 (Erich Weingartner)

13장

도잔소 - 한반도의 지구적 연대를 향해



지구적 연대

배현주 목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서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7-18)

냉전 중에 일어난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정치 지형 위에서 신냉전의 도래 앞에 서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현 “세계 무질서” 속에서 지구적 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계적 운동은 이 지역의 핵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도잔소 프로세스가 추진한 지구적 연대는 한국(조선)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영속화하려는 권세와 세력에 저항하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구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은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적 연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기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지구적 연대 안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처럼
기다리며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배현주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부원장, WCC 중앙위원, 평화통일연대 국제협력위원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평화 과정의 지구적 연대

신승민 목사

1. EFK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의 창립 배경

2006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PRO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을 포함한 에큐메니칼 파트너 교회와 기관들 대표 약 150여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협의회”(International Ecumenical Consultation on Peace in East Asia)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의 참석자들은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 즉 “한반도 평화와 화해, 상생”에 대한 담론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에큐메니칼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교회와 해외교회 그리고 기독교 발전기구들을 초청하여 “북한 사회개발을 위한 콘소시움 (이하 콘소시움)”을 시급히 창설할 것을 WCC에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근거하여 그 해 12월 홍콩에서 25개 교회와 기관 대표들, 그리고 도잔소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한 에릭 와인가드너 선생과 박경서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콘소시움 창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콘소시움의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의 확산”과 “북한의 대안적 사회개발을 위한 에큐메니칼 자원나눔”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WCC 국제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과 NCCK, 세계교회와 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 구도에도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교회는 북한 태양광 발전을, 독일교회는 풍력 발전을 이 콘소시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첫 모임에 KCF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콘소시움 창설에 동의한다는 연대서신을 보내왔다.

2008년 2월, 독일 아놀드샤인에서 비로소 남북한 교회 대표, WCC 그리고 세계교회와 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콘소시움의 큰 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조그련은 ‘콘소시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에큐메니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개발협력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 그 명칭도 Consortium에서 Forum으로 바꾸었고, 사무국은 NCCK 내에 두고 첫 사무국장으로 채혜원 목사를 임명하였다. 요약 하자면, EFK는 2006년 5월, 서울에서 발의되어, 2006년 12월 홍콩에서 한 차례 준비 회의를 거쳐, 비로서 2008년 독일 아놀드샤인에서 창립하였다.

2. EFK를 통한 화해와 평화, 상생을 향한 여정

2008년 공식 출범한 EFK는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남북 화해, 평화, 상생을 향한 담론 확대와 실천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12년간의 EFK의 족적을 살펴 보면:

1) 도잔소 25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협력: 2009년 10월 21-23일 홍콩에서 도잔소 프로세스 25주년을 맞이하여 WCC 삼 코비아 총무, KCF 강영섭 위원장, NCCK 권오성 총무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n Ecumenical Vision beyond the Tozanso Process [한반도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 도잔소를 넘어 에큐메니칼 비전을 향하여]”는 2008년 5월 난징에서 열린 EFK 실행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 이후 남북교회와 세계교회가 참여하는 한반도 관련 회의와 행사는 거의 EFK 테이블에서 제안, 논의되었으며 주 참석자도 EFK 회원들이었다.

2) 인도주의적 교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남한 정부는 그 해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는 5.24조치를 발표한다. 그러나 NCCK는 5월 말 EFK의 주선으로 중국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밀가루 180톤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듬 해 3월 다시 153톤을 조그련으로 보내게 된다. 남북관계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EFK의 주선과 그 이름 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협력과 상생을 통한 화해와 신뢰회복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3) 한반도 최초 EFK 모임: 2015년 10월 23-30일까지 장상 회장, 프루브 국장, 정희수 감독, 김영주 총무, 필자 등 EFK 소속 총 12인이 KCF 초청으로 총 8박 9일의 일정으로 북을 방문하고 한반도 최초의 EFK 모임을 북에서 개최하게 된다. EFK는 8박 9일의 일정을 마감하면서 “평양 어필”을 발표하고, 군사훈련중지, 대북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체결,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화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4) 북식당 여종업원 납치사건 진상규명: 2016년 4.16 한국 총선 직전인 4월 7일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조그련은 즉각 WCC, NCC, EFK 등에 전문을 보내 이는 탈북이 아닌 납치사건이니 세계교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 나서 주기를 요청하였다. 여종업원 탈북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EFK실행위원회는 6월 심양에서 만났고 조그련은 12명 여종업원 가족들의 서신을 WCC에 전달하였고 WCC는 다시 이 서신을 NCCK 전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NCCK는 한국 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상규명운동에 나섰고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사건은 납치사건으로 판명되었다. 남북교회, 세계교회가 EFK라는 플랫폼을 통해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호신뢰를 쌓는 좋은 예가 되었다.

5) 한반도 평화조약 에큐메니칼 컨설레이션 (International Ecumenical Conference on a Peace Treaty): 2016년 11월 14-16일까지 NCCK의 제안과 WCC의 주선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대한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조그런 대표들을 포함한 EFK 회원들은 한반도 평화조약이 전쟁과 분단을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NCCK가 제안한 평화조약안에 상당 부분 동의를 표하였다. 평화조약캠페인에 대한 EFK의 적극적 참여로 한국 1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부터 “종전과 평화협정실현 세계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6) WCC 60주년 기념대회: WCC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6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창립 60주년 대회에 WCC의 초청으로 조그런과 NCCK가 함께 참석하여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고무된 한반도 상황을 WCC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교황 프란시스코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개최된 EFK 전체 모임은 EFK가 도잔소 프로세스 전통을 잇고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3. EFK의 비전과 신학

1)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 남북이 적개심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뢰회복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FK의 주요한 역할은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며, EFK는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남북과 세계교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 다름의 축복: 분단 이후 남북은 획일성의 사회 아래에서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다름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¹⁷ EFK라는 플랫폼을 통해 남북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를 분단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3) 은혜의 나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오늘의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¹⁷ Emmanuel Y. Lartey, *Postcolonializing God: An African Practical Theology* (London: SCM Press, 2013), 1-4.

고 생각한다. 그래서 WCC는 “There is no evangelism without solidarity; there is no Christian solidarity that does not involve the sharing the knowledge of the kingdom which is God’s promise to the poor of the earth. [연대 없는 선교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나누지 않는 기독교 연대는 없다]”고 확인한다.¹⁸ WCC는 1987년 발표한 나눔의 지침에서 “우리의 … 나눔에 있어, 일방적으로 주는 자도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자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¹⁹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며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나눔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EFK공동체는 이 은총의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다.

WCC 부총무였던 Wesley Ariarajah가 말했듯이 화해란 회개와 용서, 치유로 이어지는 지난한 여정이다.²⁰ EFK는 남북과 세계교회와 함께 이 지난한 화해와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무수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신승민 목사는 NCKK 화해·통일국과 국제협력국 국장이다.

¹⁸ Jacques Matthey e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tatements on Mission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0-2005)* [당신은 세상의 빛: 세계교회협의회 선교 선언문]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5), 23.

¹⁹ Michael Kinnamon, ed., *The Ecumenical Movement: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에큐메니칼 운동: 주요 문서와 목소리들] (Geneva: WCC Publications, 2016), p 206.

²⁰ S. Wesley Ariarajah, *Axis of Peace: Christian Faith in Times of Violence and War* [평화의 중추: 폭력과 전쟁의 때의 기독교] (Geneva: WCC Publications, 2004), 131.

기도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끄소서. 우리 민족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천 년 동안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의 대리전 같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여전히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크고 작은 평화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기본원칙을 합의하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평양에서 감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남북정상에 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의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남과 북의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던 평화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였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평화의 출구를 찾는 듯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 동안의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기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주인인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생각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통일을 향한 길에도 외세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목격합니다. UN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시도가 간섭을 당하고, 남북 철도연결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비군사적 비무장지대의 출입도 통제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이익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당사자인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과 북이 어떤 외세의 간섭에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분단의 상처를 인해 여전히 갈등하는 남남갈등의 깊은 골을 메우는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육순종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직전 총회장이다.



14장

평화와 일치 – 이루기 어려운 목표



진정한 평화

폴 최 목사 (Rev. Paul S. Tché)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시편 85:10-11)

이 시편은 일치를 위한 하나님 백성들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갈등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걷는 기독교인들의 연대 선언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일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일치를 위한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가해진 불의를 잊어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치는 “값싼” 일치이고, 적은 값으로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그저 위장된 갈등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으며, 때로 우리는 조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거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땅에서 진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일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일치의 노래를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한 일치의 비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로 완벽하게 조율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노래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이것은 한반도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를 위한 일치를 꿈꾸며 한반도 사람들과 동행하면, 그들 또한 같은 비전을 꿈꾸고 언젠가 그 비전을 지구 위 모든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기도

온 백성의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한반도와 지구 위 모든 곳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아멘.

폴 최 목사 (Rev. Paul S. Tch )는 제자교회 세계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다.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회원이다.

이루기 어려운 평화와 일치

조영미 박사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곤 했던 만두와 순대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복식 만두와 순대는 가족 모임을 위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음식을 많이 만드셨고, 온 가족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즐겁게 나눠 먹곤 했습니다.

만두를 만들면서 할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준 북쪽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떠난 할머니의 이야기는 행복하고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전쟁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눈물로 끝맺었습니다.

이념이나 갈등과는 상관없는 갈망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눈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결국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천국에서 고향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머니가 사셨던 북쪽은 나에게도 고향이긴 하지만 나는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 분단을 인식하는 방식과 이것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국민 정서와 화합의 힘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은 한반도 분단 75주년이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휴전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군사분계선은 유엔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 땅이지만, 남북 간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18년 세계를 놀라게 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진전이 이뤄지는 듯했지만,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반도 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전쟁

전쟁의 상흔과 분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6월은 애국지사들과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달입니다. 6월은 역사를 통틀어 전쟁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과 삶을 달래는 때입니다. 6월에 우리는 한국전쟁이 남긴 고통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전쟁이 일으킨 삶의 변화는 여전히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 질서의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역사적 사실이자 비극인 동시에, 가족, 개인, 공동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물적 기반 파괴, 인명 피해와 정치적 혼란, 개인과 가족의 분리, 그리고 심리적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세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역사는 남성 중심의 희생과 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 겪은 전쟁의 고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전략으로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 전투력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 성노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개인의 트라우마를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로 확대됩니다. 70년이 지나도 상처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목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도와 노력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1991년 12월,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적대관계를 협력적 공존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 주도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 정상은 처음 만나 손을 잡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의 창조

6.15 남북공동선언은 평화, 화해, 협력의 토대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루어진 우리 역사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후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이를 보다 상세히 발전시켰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은 매우 실용적이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연결성, 지속성,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체제 하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의 역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입니다.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없이 빈곤과 갈등 해결, 자유, 복지, 인권, 정의가 구현되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모두가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이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단 체제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변혁하여 평화를 창조하고 군국주의 문화를 극복하여 인간 안보를 실현하는 것은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이념적 틀 안에 두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념적인 싸움을 촉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북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정해지고, 이념적 틀에 끼워지며,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

전쟁과 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역사적, 사회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집단과 사회 안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계속 존재하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와 공감의 마음으로 서로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경기 DMZ포럼에서 미국 페미니스트 지도자 글로리아 스타이넘 (Gloria Steinem)은 나무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지도자들의 약속과 합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평화는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 가치관, 인종, 차이, 문화, 제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만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러한 차이를 중시하고 존중할 때 평화는 가까이 올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평화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성 평화 운동 또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교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평화 운동은 강력한 네트워크는 아니었지만, 강하고 지속 가능한 연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 역시 사랑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믿음을 나누며 그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가능성에 가두지 말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 화해, 사랑, 그리고 평화의 띠를 두르고 연대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WCC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NCK 또한 매년 민족화해주간을 지정해 평화와 상생을 위한 예배와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오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평화 구축으로 평화적인 공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5:8-13입니다.

나는 듣나니, 야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입 맞추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실천을 통해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평화를 향한 젊은이들의 열망과 노력이 기독교인들의 평화로운 삶과 행동에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사람 간의 평화, 국가 간의 평화, 동물과 자연 즉 창조세계와의 화해와 평화는 궁극적인 해방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오” (엡 2:14).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긴 역사 속 오래 된 뿌리인 사람들의 갈등을 넘어 평화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다차원적, 다선적, 다중적 소통과 관계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도, 교회 내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옹호 활동, 시민 운동, 공공 외교, 그리고 연대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적대 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 창조를 위한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영미 박사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다. 대한민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평화への 헌신

앤 캐스파슨

어린 시절부터 한미미씨는 한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화 활동가 가족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북 출신이었고 60대에 강력한 여성 인권 옹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미미씨는 세계YWCA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단체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00여 개 국가에서 여성, 청년 여성, 소녀들의 권한 강화, 리더십,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미미씨는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직과 WCC 아시아 지역 임원직도 맡고 있습니다.

통일과 하나의 한국

한미미씨는 “이 지역 평화 구축과 화해를 위해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어떤 조치들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었고 어떤 조치들은 우리를 뒤로 당겼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통일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한 청년 중 40%는 북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통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평화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쟁과 점령, 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등을 겪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 겨레로서의 정체성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많은 면에서 한국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한 근본적 토대인 평화와 인간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엄청난 군사비 지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미씨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을 통해 대화와 평화를 증진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용을 막아야 합니다. 대신, 대화가 해결책입니다. 이제 한국전쟁을 멈출 때입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 안보와 세계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원과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을 동원해 진정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평화를 지지해야 합니다.”

평화 건설자로서의 여성들

한미미씨는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평화협정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등급이 매겨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미씨는 여성들이 평화 건설을 단지 무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전쟁과 분쟁에서 가장 큰 희생자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 할 파워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힘을 공유하는 보다 수평적인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지난 해 한미미씨는 다른 평화 활동가들과 함께 워싱턴 DC와 국회의사당을 방문했고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의 더 많은 대화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미씨는 평화의 열쇠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나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고 진정한 평화구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인으로서 우리의 도전이자 소명입니다.”

한미미씨는 자신의 가정환경이 어떻게 그녀를 평화 건설을 위한 직업으로 이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기도를 하던 중, 5개의 R자를 보고 각각의 R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며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자신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회개(repent)할 필요성과 화해(reconciliation), 회복(restore), 통일(reunification), 부흥(revival)이 그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보다 더 깊고 강하게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큐메니칼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우리는 삼일운동 제93주년을 맞이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생명의 미래를 향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엄숙한 신앙의 양심과
자자손손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리게 되는 소망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선언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참된 평화를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 21세기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가
어느새 핵무기와 핵발전의 먹구름으로 뒤덮히게 된 것을
두렵고 놀란 마음으로 목도합니다

20세기 아픔의 역사로 인한 라헬의 통곡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억울한 죽음과 고난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땅에
또 다시 자멸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직시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북한은 핵무기, 남한은 핵발전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20세기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고서도
여전히 전쟁과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탄식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지구촌의 현실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군비 경쟁에 쏟아 붓는
인류의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보는 강대국과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정부와 기업이
제국의 야심을 불태우며
무한한 경제 성장의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모든 공동체의 상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우주적 진리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핵발전을 추구하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와 교만을 회개하오니
가난하고 겸허한 마음과 절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부는 물질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삶과 나눔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이란 무기이든 발전이든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핵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힘은 핵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바람과 물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로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괴롭고 무서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양립할 수 없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전파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전지구촌에
생명과 평화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제국의 희생자 되어 십자가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배현주 목사

이 기도문은 2012년 3월 1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창립 예배에서 1919
독립 운동 93주년을 기념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됐다.



15장

이제 행동할 때



한반도에서 일치는 가능한가?

무니브 A. 유난 주교 (Bishop Dr. Munib A. Younan)

여러 역할을 가지고 한국에 몇 번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랍계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나는 다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왜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와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말로만 떠들면서, 실제로 평화와 정의와 통일을 구현해야 하는 도전을 일으키지 않는가?"

한국(조선)은 길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둔자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평화협정이나 평화로의 길도 없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한국 전쟁 이후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긴장은 고조되어 있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국경 지역에서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정치적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인구의 상당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는 개신교와 천주교 선교사들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반도 사람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남북(분단)은 냉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 잔혹한 투쟁의 유산이며 이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통일을 향한 그들의 수많은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수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위해 립서비스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주요 강대국들과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정의, 평화, 통일을 향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들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거대한 과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한국으로서 하나의 국기와 하나의 지도력 아래 마침내 통일되는 것 외에 한반도 사람들이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오랜 투쟁에서 해방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통일, 평화 그리고 정의의 미래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무니브 A. 유난 주교 (Bishop Dr. Munib A. Younan)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요르단과성지복음주의루터교회 전임 주교이고, 전 루터교세계연맹 의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명예의장을 지냈다.

최선의 길을 찾아서

앤 캐스파슨

프랭크 치카네 목사 (Rev. Frank Chikane)는 중재자, 목사이자 남아프리카기독교교회협의회 (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 SACC) 총무, 그리고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일민주 전선(United Democratic Front, UDF) 소속 전직 정치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재임 중 내각 부장관을, 만델라 후임인 타보 음베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인종 차별에 맞서 일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갈등 해결, 평화 구축, 화해를 위해 광범위하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WCC CCIA)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치카네 목사: 저는 보수적인 오순절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기독교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인종 차별 제도의 잔인함과 인종차별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했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그것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훼손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재천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종 차별 제도에 저항할 때, 당연히 우리는 제한을 당하고 구금되고 고문당했습니다. 저는 정치참여 때문에 교회 목사직을 정직 당했고, SACC에서 총무로 일하기 시작하며 에큐메니칼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SACC는 이 나라 사람들의 유일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행동해야 했고, 인종 차별 제도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갈등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저는 해방운동과 그 지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인종 차별 정책에 비폭력 방식으로 정면 대응했던 통일민주전선의 지도부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과와 함께 목사로 복직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교회의 흑인 부서 지도자가 되었고 부서는 1996년에 백인 부서와 통합되었습니다. 1994년 민주 선거 이후, 저는 정부에서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정부 일원으로서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음베키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여러 국가의 평화 구축에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과 폭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여기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이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일하셨는데요. 넬슨 만델라 같은 지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평화를 위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치카네 목사: 네, 만델라 대통령 시절 내각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석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저를 불렀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석방 때, 저는 석방 환영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유명한 석방 사진에서 저는 뒤쪽에 숨어있습니다. SACC 총무로서 사진에 남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만 아니라 그와 함께 로벤 섬으로 갔던 지도자들 모두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많은 흑인들보다 앞서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가졌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인종 차별 제도와 상관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편이 더 나아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며 그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딸은 아기였고, 마마 만델라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비워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울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불해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필요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급진적으로 변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그들은 보복을 원하며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나라에서 싸우고 있던 정당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과도 대화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비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유엔도 그를 인정하며 만델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만델라의 가치와 인류 봉사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여 7월 18일을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세대입니다. 나 또한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종 차별로 인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타협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종 차별적 시각으로 인종 차별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북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예외였습니다.

서구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인종 차별 제도를 지지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서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타협이었지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델라는 자멸의 위험에서 평화로 가는 다리를 건너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끝낼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풍부한 경험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치카네 목사: 한반도와 같은 곳은 역사와 세계 지정학, 그리고 남과 북 사람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러 이해관계의 희생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전쟁을 끝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냉전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반도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국(조선)인들이 자신들만의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관련된 초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이 협정을 인정하고 한국인들이 세계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평화 구축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해야 합니다.

남북에는 이산가족이 많고, 그들은 스스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냉전 중 그들이 싸웠던 전쟁과 세계에 의해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와 국경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연방 체제를 시작으로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과 남에 갔을 때 놀랐던 것은 그들 모두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끼리는 내일이라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전쟁과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국경이 폐쇄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한반도에서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어떻게 진정한 평화 건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치카네 목사: WCC는 남과 북 밖과 안에서 양측 교회 지도력을 한 데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WCC 전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의장주교와 WCC 국제위원회 국장이 한반도에서 해온 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했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WCC는 양측이 함께 모이게 했고 우리가 북과 남을 함께 방문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지지하는 연대 그룹이 형성된 것 또한 큰 성과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교회들과 함께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권력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난 번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맺은 합의²¹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합의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왜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부 세력의 방해 없이 그들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가? 그들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두고 그저 지지할 수는 없는가?” 외부 간섭이 없다면 그들은 바로 내일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티칸이 이 일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해야 합니다. WCC와 바티칸은 함께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분쟁은 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가요?

치카네 목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보면, 정말 엄청난 영향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세계에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초강대국들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평화를 열망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 놀이나 ‘권력 게임’에서 벗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정의의 명분을 추구해야

²¹ 2018년 평양공동선언

합니다. 갈등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힘을 이용해 해결책에 도달한다는 생각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를 경험했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직접 대화한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 사람들 사이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만들 때 “한 쪽은 핵무기를 끝내야 하지만 다른 쪽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의 역학관계는 분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세계 강대국으로부터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치카네 목사: 역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쟁과 이산가족은 현재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역사의 고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남아공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게 두지 마라. 과거는 나쁜 소식이다. 미래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남쪽으로 가는 큰 길 위에 있는 북의 유적지에서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길이 열려 남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다시 하나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평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한 가족으로 함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교회들은 남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남쪽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역사와 싸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있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의 생활 방식은 낯설지만, 우리는 서로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 그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파괴적 순환고리를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평화를 위한 일에 있어서, 넬슨 만델라의 영적인 힘으로부터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카네 목사: 남아공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도 잘못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지 말고 평화와 정의를 찾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라크에 갔을 때, 소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매우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 유럽이나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남아 이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 차별과 싸우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오랜 시간 변화를 추구했던 반면 어떤 교회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를 처음 지지해 준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며, 그 목소리는 무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신앙 공동체와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명분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땅 위에 있는 제도나 조직들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자신에게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적 영향, 정치, 삶, 나라와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순응하거나 당대의 전통에 굴복했다면,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을 때,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와 도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정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기도

오 주님, 저는 남한을 세 번 방문하며 한국전쟁과 정치적 충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한반도 북쪽에 친지를 둔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고 살며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자녀와 다가올 세대를 위해 평화를 만들어나갈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전쟁과 증오, 분단 상황은 종식될 수 있고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살며 모두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자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북과 남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가 승리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지역과 세계의 강대국들이 개입을 중단하고 한반도 사람들이 스스로 화해를 위한 자신들의 길을 찾고 평화 속에서 살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북과 남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들이 평화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가 한반도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앞날에 사랑과 자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에 맞춰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곳, 첫 번째 교회가 태어난 곳, 전쟁과 폭력과 억압이 여전히 만연한 곳, 이곳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한반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 아부 줄루프 & 니달 아부 줄루프

니달 아부 줄루프 (Nidal Abu Zulf)는 이스라엘 점령과 팔레스타인 식민지 종식을 목표로 YMCA와 YWC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Joint YMCA/YWCA Advocacy Initiative)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학생운동을 창립했고, 팔레스타인기독교단체연맹을 공동 창립했다. 팔레스타인 카이로스 문서 공동 저자이자 WCC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 핵심 그룹 일원이다. 바나 아부 줄루프는 그의 딸이다.



후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피터 프루브 (Peter Prove)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종식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이 넓은 세계의 사건과 변동, 특히 “악의 축”이라는 말의 등장으로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너무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잔소 프로세스 이후 성장한 에큐메니칼 만남과 대화는 냉랭한 지정학적 기후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한반도에 재앙적인 핵 갈등이 임박해 보이고,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며 심각한 위기의 시간이 이어지던 때 부산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반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분단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다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악의 순간 이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정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평화의 순간을 경험했고 이어진 고위급 회담으로 갑자기 평화가 기적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한 낙관주의는 다시 한번 실망과 환멸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굳은 희망으로 가득한 견고한 충격 흡수제 없이는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최근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던, 그러나 이제 멀어져 가는 비전을 단호하고 인내심 있는 희망으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경험과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위기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대화와 만남입니다. 서로 동료 인간으로서 동료 기독교인으로서 만나 관계와 상호 이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적 이미지와 상호 불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독제입니다. 대립과 최대의 압박이라는 대안은 수년 동안 비효율적이었음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핵무기로 가득한 이 상황에서는 정말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내재적이고 심각한 충돌 위기를 가져옵니다.

평화를 위해, 악마화는 끝나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역사에는 비난과 죄의식이 맴돌며 넘쳐납니다. 누구도 깨끗한 손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은 한반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었고, 엄청난 파괴와 민족과 가족의 분열을 겪었으며 불안정과 파괴적인 갈등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흐려진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수백 기의 미 핵무기가 남쪽에 배치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핵 폐기를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 세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간행물의 기고자들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며 미래를 위한 희망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이 됩니다. 또한 70년 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중대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이 됩니다.

한(조선)반도 전쟁 70주년 세계교회 공동 평화선언문은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이다. 오랜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새로운 도전들 또한 제기되었고, 계속하여 분단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쟁 종식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향한 현실적 대화와 협상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지체해 온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평화조약이 문서화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적대감을 완화하고 정체된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간행물을 통해 여러분이 이 호소를 더욱 강력하게 확대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희망을 새롭게 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프루브 (Peter Prove)는 WCC 국제위원회(CCIA) 국장을 맡고 있다. 호주 국적으로 직업 변호사인 그는 평화 구축, 군축, 인권 옹호 분야에서의 WCC 활동에 대한 기획 책임을 맡고 있다.

한(조선)반도 전쟁 70주년 세계교회

공동 평화선언문

2020년 6월 25일

70년 전 한(조선)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약 삼백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이산가족을 양산했고, 동일한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혐오를 초래했다.

한(조선)반도 갈등의 근본적인 토대는 36년의 일본제국 지배에서 해방 직후 세계 2차대전 이후 미합중국과 구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 신탁통치를 당하며 분단은 냉전시대에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이어지며 한(조선) 반도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그 후 1953년까지 3년간의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을 분리하는 비무장 지대가 만들어지면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한(조선)반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한(조선)반도 전쟁 참전국의 교회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한(조선)반도의 즉각적인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실현을 향한 출발점으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이다. 오랜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새로운 도전들 또한 제기되었고, 계속하여 분단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쟁 종식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향한 현실적 대화와 협상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지체해 온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평화조약이 문서화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적대감을 완화하고 정체된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혹은 즉각 취소하고,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와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외교관계를 속히 정상화하기를 요구한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 6월 싱가포르 선언에서 결의한 한(조선)반도 평화를 향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한(조선)반도를 핵 위협에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현실화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또한 온 세상이 핵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이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한(조선)반도 전쟁의 역사는 통일이 그 어떤 무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통일은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된 한(조선)반도 백성들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통된 정체성과 미래를 공유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영향력과 영감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참전국 (Endorsements from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한국 (South Korea)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대한성공회 (성공회)

미국 (USA)

미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연합감리교회 (미국)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제자교회 (미국)

아프리카 감리교회 (미국)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미국)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호주 (Australia)

호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호주 연합교회

호주 종교친우회 (Quaker)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연합개혁교회

영국 및 아일랜드 교회협의회

The Rt Rev. Stephen Cottrell, Bishop of Chelmsford

스코틀랜드 교회

태국 (Thailand)

태국 그리스도교회

캐나다 (Canada)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 성공회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 침례교회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캐나다 에디오피아 정교회
캐나다 루터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구세군
캐나다 우크라인 카톨릭 교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캐나다)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 기독교 교회협의회

뉴질랜드 (New Zealand)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장로교회
에디오피아 (Ethiopia)
에디오피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루터교회

프랑스 (France)
프랑스 연합 개신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교회협의회, Kees Nieuwerth, Vice-President

기타 서명 (Other Endorsements)

세계 총 대주교청
세계개혁신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회협의회
YMCA 아시아 태평양 연맹

독일 (Germany)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Bishop Petra Bosse-Huber,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독일 복음선교연대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일본 (Japan)
일본 기독교교회 협의회
재일대한기독교회
노르웨이 (Norway)
노르웨이 교회

러시아 (Russia)
모스크바 총 대주교청-러시아 정교회

2020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겨울 속에서도 새봄을 준비하듯이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한(조선)반도의 역경 속에서도 새 역사를 열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아,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천재와 인재가 뒤섞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동족끼리 총을 겨누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경험했으니 다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소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 나게 하소서.

올해로 6·15 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단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불가역적 대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한(조선)반도의 남북(북남)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4·27 판문점선언으로 한껏 부풀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들불처럼 타오르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좌절의 침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신선한 새 공기를 한(조선)반도에 불어넣어 주소서.

개성공단에 다시금 공장의 불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인적 끊긴 금강산 골짜기마다 화해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소서. 이산가족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격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게 하소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와 무기를 철수하는 평화의 걸음이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끊어진 교류를 회생시켜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이로 인해 고통 당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됨으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은 생명·정의·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임당한 자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맞잡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한(조선)반도 회년을 향한 부활의 거룩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이 세상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4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